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68호 【루계 제24946호】 주체104(2015)년 6월 17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배워 바다양어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자

바다양어의 새 력사가 이 땅우에 펼쳐지고있다.

지난 5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한 인민군군부대산하 연어종어장과 연어양어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은 온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을 끓게 하고있다.

사회주의조국의 바다에 펼쳐진 선군시대의 희한한 선경, 청춘어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려는 해당 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타는 충정이 안아온 귀중한 결실이다.

지금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배워 바다양어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양어를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수산업을 발전시키자면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 양어와 양식의 전망과 미래는 바다로 나가는데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바다양어를 발전시켜 경제적효과성이 높을뿐아니라 고기맛이 좋고 영양가있는 물고기생산을 급격히 늘여나가는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다. 대서양연어만 놓고보아도 다른 연어품종에 비해 경제적효과성이 대단히 높은 품종일뿐아니라 고기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아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양어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절대로 소홀히 할수 없으며 중도반단하여서도 안된다. 바다양어를 대대적으로 벌리는 문제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고 인민들의 식탁우에서부터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나오도록 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현실로 꽃피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다.

오늘의 생산돌격전은 곧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다.

지금 인민군대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여 곳곳에 희한한 양어풍경을 펼쳐놓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연어양어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한 일이며 바다연어양어를 실현해야 우리 나라가 양어가 발전된 나라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신 연어종어장과 연어양어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소문없이 큰일을 해놓았다. 알깨우기와 새끼고기기르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할수 있는 종어체계와 물질기술적토대를 그쯘히 갖추어놓고 연어양어는 물론 민물에서 사는 칠색송어를 바다에 순응시켜 길러내는 결실을 안아왔으며 연어훈제와 연어알젓, 연어편육 등 맛좋고 영양가높은 연어가공품들도 생산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어종어장과 연어양어사업소의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온종일 걸었으나 힘든줄을 모르겠다고, 바다연어양어를 틀어쥐고 근기있게 내밀면 얼마든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맡고있는 단위들에 가보면 언제나 기쁜 일이 기다린다고, 바다양어 좋을시구 어깨춤이 절로 난다고 하시며 거듭 만족해하시였다.

이들이 거둔 성과는 결코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모든것이 다 성공한다는 립장과 관점, 당의 수산정책을 기어이 관철하겠다는 투철한 정신,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였다. 어렵고 생소한 바다양어에 뛰여들어 날바다와 싸우며 첨단으로 향한 길을 개척해갈 때 그 어떤 명예나 평가를 바랐다면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없었을것이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조국의 재부를 하나하나 늘여나가는데서 가장 큰 보람을 찾는 참된 애국의 마음이 이런 자랑스러운 현실을 펼칠수 있은것이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지금 인민군대가 바다양어에서 이룩한 성과가 전국의 수산부문에 거세찬 불길로 타번져야 한다.

수산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대가 지펴올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바다양어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뛰여들어야 한다.

인민군대에서 나라의 곳곳에 희한한 양어풍경을 펼쳐놓기까지는 실패와 난관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의도를 끝장을 볼 때까지 관철하려는 정신이 오늘과 같은 결실을 안아왔다.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본때로 바다양어에서 세계를 딛고 일어설 야심만만한 배짱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드세차게 지펴올려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있는 인민군대 수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모든것이 다 성공한다는 립장과 관점, 당의 수산정책을 기어이 관철하는 해당 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처럼 당정책관철을 위한 길에서는 사선도 맞받아 헤쳐나가는 강의한 의지의 소유자가 되여야 한다.

우리가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과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수산부문의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그들이 바다양어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기 위한 투쟁도 곧 당정책옹위전, 사회주의제도보위전으로 여기고 생산돌격전의 하루하루를 영웅적위훈으로 이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대오의 기관차가 되여야 할 일군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일군들의 어깨우에 당정책의 운명이 놓여있다. 수산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은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자연과의 투쟁인 동시에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소극성, 패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다. 수산부문 일군들은 대담하게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바다양어에서 얼마든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용약 떨쳐나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수산업을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이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도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는것이 가슴아프시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몸소 여러 수산기지들을 찾으시여 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도를 가르쳐주시였을뿐아니라 잡은 물고기를 수출하지 말고 인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시고 평양시에 물고기전문상점을 내오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주시였다. 지금도 온 나라 천만군민은 우리 손으로 길러낸 철갑상어가 바다로 나가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조선은 세계로, 철갑상어는 바다로라고 한편의 시를 읊듯이 외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환하신 영상을 잊지 못하고있다.

우리 당이 오늘 수산부문을 중시하고 수산업발전에 큰 힘을 넣고있는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유훈을 관철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기 위해서이다. 수산부문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달리는 렬차집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보아주신 문건이 바로 수도시민들에게 물고기를 공급할데 대한 문건이였다는것을 다시금 뼈에 새겨야 한다.

우리 나라 바다는 오염되지 않고 생태환경이 깨끗하다. 수산부문 일군들은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배워 바다양어에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리용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바다양어에서 선진국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하기 위한 투쟁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시되면 처음에는 벅적 끓다가 인차 식어버리는 오분열도식일본새, 아무런 사색도 연구도 없이 당정책을 아래에 그대로 되받아넘기고 책상머리에 앉아 문건놀음이나 하는 낡은 사업방법은 오늘의 총공격전과 인연이 없다. 수산부문 일군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바다양어를 대대적으로 벌리기 위한 작전을 통이 크게 전개하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물질기술적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하며 바다양어를 위한 사전준비를 원만히 갖추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군대에서 창조한 경험을 적극 따라배워 현대적인 양어기지들을 일떠세우고 하루빨리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는 사업도 립체적으로 내밀어야 한다. 인민군대처럼 대대손손 물려갈 조국의 귀중한 재부를 또 하나 마련한다는 심정으로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고 훌륭한 결실을 안아와야 한다.

어로전과 마찬가지로 바다양어도 두뇌전, 기술전이다. 바다양어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는 사업은 수산부문에 첨단돌파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투쟁과정이기도 하다.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과학기술을 떠나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는 자각을 가지고 앞선 과학기술을 습득하는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며 두뇌전, 기술전으로 바다양어를 개척해나가는 확고한 기풍을 세워야 한다. 양어에서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어느 하나도 드팀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양어를 하는 단위들에서 이룩한 좋은 성과와 경험을 서로 교환하고 일반화하며 세계적으로 앞선 양어기술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사업도 해야 한다.

수산과학연구부문에서는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바다양어에서 세계를 앞서나가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으며 현실에 도입,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물, 종자, 먹이문제는 바다양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는 연어종어장에 첨단기술이 도입된 물려과 및 물소독, 산소포화공정을 꾸려놓고 가장 리상적인 물온도와 수질을 보장하고있을뿐아니라 과학적이며 종합적인 물보장 및 물재순환체계를 확립하였다. 알깨우기와 새끼고기를 기르는데 리용한 물도 그대로 방류시키지 않고 실내 및 야외양어못들에 흘러들게 하여 칠색송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물고기들을 키우고있다. 수산부문 일군들은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 양어에서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세우고 양어기술을 발전시키며 물절약형양어를 대대적으로 하여야 한다.

물고기종자와 먹이문제해결에도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퇴화된 재래종물고기를 길러서는 양어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일수 없다. 먹이를 적게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고 생활력이 강한 물고기종자를 얻어내여 많이 기르도록 하여야 한다.

양어에서 먹이문제해결의 기본방향은 될수록 자연먹이로 물고기를 기르는것이다. 수산부문에서는 배합먹이와 먹이첨가제생산기지를 잘 꾸리고 질좋은 배합먹이와 먹이첨가제를 양어장들에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바다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중단없이 내밀며 맛좋고 영양가높은 물고기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그 위생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수산부문 일군들은 우리 인민들이 하루빨리 풍족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쉬임없이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를 한시도 잊지 말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죽으나사나 수산을 추켜세워야 한다는 당의 사상을 뼈에 새기고 바다양어도 대담하고 혁신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수산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여!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바다양어의 새 력사를 펼쳐나감으로써 내 조국의 바다에 황금빛파도가 설레이게 하자.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강원도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을 맞으며 강원도당위원회에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각급 당조직들이 뜻깊은 이날을 계기로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도록해설모임과 해설담화, 강연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도록해설모임과 해설담화, 강연을 통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장구한 기간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은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이며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백전백승의 기치라는것을 더욱 가슴뜨겁게 간직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강원도혁명사적관참관을 통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도안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데 대하여 잘 알게 하고있다.

원산청년발전소와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간 도당위원회의 일군들은 단위에 주신 장군님의 교시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다시금 깊이있게 해설해주면서 그들이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시, 군당위원회들과 도급단위의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특출한 령도력, 가장 숭고한 인덕을 지니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라는것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천내군과 김화군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봄철영농전투가 한창인 포전들에 달려나가 쉴참에 주체의 당건설사에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한 시와 노래를 가지고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해나가고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영원히 받들어모시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으며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백두산위인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안변군 천삼, 사평협동농장에서 진행된 안변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참신한 사상교양사업은 대중의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분출시켜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령도업적단위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모내기전투를 다그쳐 끝내며 당면한 농작물비배관리에서 앞장에 서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세포군과 금강군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군당위원회들에서는 선동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인식시켜주어 그들이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고있다.

도급기관들을 비롯한 도안의 공장, 기업소의 당조직들에서도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있게 해설해주어 그들이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위훈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를 비롯한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은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일 열의안고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각급 선거위원회들 조직

【평양 6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전국각지에서 진행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16일까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도(직할시), 시(구역), 군선거위원회들이 조직되여 사업에 착수하였다.

중요대상설비생산성과 확대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필요한 대상설비들을 전량 생산하여 보내준 기세높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과 인민경제 중요부문에서 요구되는 대상설비생산에 달라붙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와 기계공업성의 지도방조밑에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생산자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헤고나가면서 대상설비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새로운 기술혁신안, 합리화안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로력과 자재, 전기를 절약하고 시간을 앞당기면서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부기사장 김영진, 기술과 실장 안인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새로운 주물방법과 합리적인 압축기개조방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생산에서 은이 나게 하고있다. 그들은 전기로에서만 할수 있다던 원추형파쇄기상부와 하부본체주물품생산을 중주파유도로에서 할수 있게 기술혁신안을 대담하게 실현시켜 용해시간을 줄이고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공업시험소의 기술자들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흔한 재료로 새로운 단열벽돌을 생산하여 리용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열처리작업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더 많은 대상설비를 제때에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소재부문과 가공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상반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열설비와 압축기, 원추형파쇄기, 분쇄기치차, 수차바가지를 비롯한 각종 크고작은 방대한 대상설비생산으로 온 기업소가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선군주철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주물품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용해, 조형, 완성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생산의 선행공정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분초를 쪼개가며 긴장한 전투를 벌려 각종 주물품들을 제때에 생산하여 다음공정들에 보내주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선군압축기직장과 1, 2, 3기계직장, 대형공작기계직장, 1, 2제관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한사람이 두몫, 세몫씩 맡아해제끼면서 매일 대상설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추동하는 사회주의증산경쟁 활발

농근맹중앙위원회와 각지 농근맹조직들에서

농근맹중앙위원회와 각지 농근맹조직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증산의 열쇠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농근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농근맹조직들에 사회주의증산경쟁지휘부가 조직되고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사회주의경쟁추진 및 평가성원들이 맹활약을 하고있다.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더욱 높이기 위한 목적밑에 벌어지는 사회주의증산경쟁은 도, 시, 군농근맹조직들과 협동농장들, 그아래 작업반, 분조,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공장, 기업소의 작업반호상간에 진행되는 경쟁이다.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는 경쟁참가대상을 실정에 맞게 선정하였다. 선군시대 본보기협동농장들사이,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도들사이, 알곡생산계획이 5만t이상 되는 다수확 시, 군들사이, 알곡생산계획이 1만t이상 되는 협동농장들사이 매영농공정별에 따르는 사회주의증산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는 방송정론, 해설담화자료를 비롯한 20여건의 교양자료들과 경제선동자료를 도, 시, 군농근맹조직들에 내려보내였다.

령도업적단위들과 중요알곡생산지대들에 내려간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각지 농근맹일군들은 동맹원들속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조직하는 목적과 의의를 알려주고 그들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는 농근맹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사회주의증산경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농근맹일군들과 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 목적밑에 지난 3월부터 5월사이에 전국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초급선전일군들의 포전선전선동경연을 조직하였다.

2만 5 000여명의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초급선전일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포전선전선동경연을 통하여 농근맹조직의 일군들과 초급선전일군들은 동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또한 참신하고 박력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아 협동벌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차넘치고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함으로써 우리 당의 선전선동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쟁열의를 고조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은 황해남도 농근맹조직들과 숙천군, 문덕군을 비롯한 평안남도안의 시, 군의 농근맹조직들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증산경쟁에서 선군시대 본보기농장들이 앞장서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이에 따라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 내려간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은 농근맹초급조직들이 사회주의증산경쟁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잘하였다. 동시에 경쟁추진 및 평가성원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앞선 작업반과 분조는 뒤진 작업반과 분조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곳 농업근로자들은 당면한 영농전투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평안북도의 시, 군농근맹조직들과 배천군의 농근맹조직들에서는 사회주의증산경쟁도표운영, 전투속보발간, 혁신자축하모임 등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총화, 평가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하여 농근맹원들의 경쟁심을 최대로 높여주고있다. 이에 고무된 이곳 농업근로자들은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앞당겨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실적을 내고있다.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각지 농근맹조직들에서 진행하고있는 화선식정치사업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사회주의증산경쟁에 떨쳐나선 농근맹원들의 정신력이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남김없이 떨쳐지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질좋은 담요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박천견직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정론

인민이 보내는 편지

조국번영의 선구자, 행복의 창조자들인 인민군장병들에게 이 글을 드린다

1

여기는 동해기슭의 아름다운 도시 원산, 처절썩 기슭을 치는 파도소리도 축하의 노래처럼 들려오고 저 하늘의 눈부신 태양도 억만가닥 해살을 꽃보라마냥 뿌려주는 아이들의 새 궁전이다.

온 나라의 경사로 설레인 항구도시의 6.1절이 금시런듯 삼삼히 안겨오는 원산육아원, 애육원.

원아들이 제손으로 준공테프를 끊고 들어선 산뜻한 마당이며 특색있게 꾸려진 원형관통홀, 팔방미인이라는 탄성이 흘러나올 정도로 눈부시게 희한한 방들과 시설들,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으시던 축복의 환한 미소가 어려오고 정말 멋있다고, 볼수록 황홀한 이런 멋쟁이 아동궁전은 세상에 다시 없을것이라고 그처럼 만족에 넘쳐 하시던 말씀이 귀가에 쟁쟁히 들려올것만 같다.

여기에선 다 보인다.

나날이 비약하는 내 조국의 창조의 높이, 우리 당의 후대사랑의 세계, 복받은 아이들이 누리게 될 행복과 래일의 모습도.

그러나 하나만은, 이 궁궐같은 아이들의 요람을 일떠세운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모습만은 볼수가 없다.

그래서인가. 원아들과 보육원, 교양원들, 원산시의 인민들이 앞을 다투어 하얀 종이에 써나가는 편지의 글발들이 그리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것은.

《고마운 인민군대아저씨들에게!》

《원산육아원, 애육원건설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동지들에게!》

자기들의 새 궁전을 지어준다고 건설장을 찾아와 부르던 노래들을 군대아저씨들앞에서 더 크게 부르고싶다는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저 편지, 군대동무들이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 그날의 마치소리, 돌격의 함성이 자꾸만 귀전에 맴돌아 가슴은 때없이 울렁인다는 보육원, 교양원들의 절절한 토로…

우리 이런 광경, 이런 인민의 모습을 여기서만 보았던가.

은빛눈갈기 날리는 마식령에서도, 승마의 쾌감을 한껏 맛본다는 저 미림에서도 행복의 자리에 인민을 세우고 지금도 어디선가 복무의 더운 땀을 뿌리고있을 병사들이 생각나 마음뜨겁다는 진정의 목소리가 울리지 않았던가. 로동자호텔로 소문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합숙처녀들이 포근한 이불속에서도 잠 못 드는 사연을 그렇게 편지에 담았고 은하과학자거리 주부들도 병사들이 차곡차곡 쌓아놓고 간 구멍탄과 불쏘시개감을 보고 가슴 뭉클 젖어들던 새집들이 그날이 자꾸만 떠오른다고 때없이 추억을 더듬는다.

군인들의 덕으로 오랜만에 물고기두름을 처마우에 매달아놓고 사회주의바다향기에 한껏 취했던 산간벽촌의 가정들에서도, 군인들이 심어놓은 터밭의 남새로 한해 김장을 맛있게 담그어 먹었다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집집에서도 이렇게 고마움을 터치지 않았던가.

우리 병사들에게 보내는 인민의 편지에는 시공간의 제한이 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사는 사시절이 인민군대가 꽃피워준 웃음으로 가득차있고 그 언제, 어디서나 인민군대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가슴찌릿해지는 이 세월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이름에 〈인민〉이라는 글자를 새긴 때로부터 조국의 수호자로서뿐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부강조국건설에도 뚜렷한 자욱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 제일 멋있고 단결된 우리 군대에는 긍지스러운 이름들이 많다.

무적필승의 강군, 일당백군대, 사상의 강군…

인민은 그 이름과 함께 자기들의 뜨거운 체험을 담아 우리 군대의 이름을 또 이렇게 부른다.

행복을 안겨주는 창조의 군대!

흘러온 3년의 낮과 밤을 다 펼쳐보고 우리 사는 거리와 마을, 공장과 유원지를 다 돌아보자. 행복이 깃드는 우리 생활의 과연 그 어느 구석, 그 어느 시시각각에라도 병사와 련결되지 않은것이 있는가.

우리 생활의 흥겨운 노래가락과도 같은 로라스케트바람, 승마바람, 스키바람, 엘도라도식물놀이라는 새 문명바람이 어떻게 일어번졌던가.

황홀한 금방석거리들, 궁궐같은 아이들의 요람들이며 집집에 흘러드는 황금해의 파도도, 선군시대 농촌의 희한한 본보기도 인민군대의 창조의 손길에 받들려 생겨났다.

군모의 오각별은 어디서나 빛났다.

조국이 헤치는 준엄한 시련, 인민이 제일 애로를 느끼는 문제, 해결하기 힘든 모든 난관돌파의 앞장에는 언제나 인민군대가 어깨를 들이밀었다.

큰물로 탄광과 철도가 파괴되였을 때 과연 누구들이 당의 뜻 받들고 제일먼저 달려왔고 가물에 탄 논밭을 땀으로 적시며 끝끝내 오곡을 자래운 사람들, 허리치는 강물속에서 감탕과 싸우며 맑은 물 흐르게 해준 사람들은 또 누구들이였던가.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콩우유생산이 중단될세라 제손으로 심어 수확한 콩을 차량마다 가득 싣고 한달음에 달려오던 못 잊을 모습들도, 중대뜨락에 감풍년이 들면 정성껏 만든 꽃감을 안고 원아들을 찾아가던 고마운 사람들도 우리 군인들이였다.

땅을 봐도, 바다를 봐도 인민을 위하는 군대의 손길이 눈물겹게 어려오고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병사의 발걸음소리가 꿈결에도 들려오는 우리 사는 내 조국,

행복은 이렇게 왔다.

우리 당이 펼친 설계도따라 군대가 열어간 길로 왔다. 군대의 발걸음따라 우리 행복의 초침이 돌았고 문명강국의 시간표가 앞당겨졌다.

국가가 발생하고 군대라는 무장집단이 생겨난지도 어언 수천년,

인류가 보아온 군대의 력사는 전쟁으로 재부를 파괴한 력사이거나 인민의 혈세로 존재해온 력사이기도 하였다.

세계 어느 나라이든 국가가 군대를 위해 부담을 걸머지고있지만 우리 조국에서는 군대가 나라를 받들고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주고있다.

수천년 내려오던 인류의 군대관을 초월하여 인민의 행복을 자기 손으로 창조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군대의 특출한 위훈이 있고 애민의 세계가 있다.

인민군대를 가리켜 누구나 인민의 아들딸들이라고 말해왔다.

이제는 군대가 그 인민을 보살피고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우는 만복의 뿌리가 되였고 고마운 은인이 되였다.

병사의 창조세계, 애민세계,

그것은 파헤칠수록 참으로 불같은 진정과 희생으로 가득차있다.

높이 솟은 창조물보다 더 높고 소중히 안겨오는것이 있다면 바로 그밑에 스민 군인들의 진정이고 그 황홀함보다 더 뜨겁게 심장을 울리는것은 군인들이 창조의 전역마다에 뿌린 결사전의 피와 땀이다.

그랬다. 우리 인민군대는 보통의 창조가 아니라 목숨을 내건 창조의 전쟁을 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기어코 우리 인민을 말려죽이려고 피를 물고 악착스럽게 달려들기에 병사는 천리방선에만 자기의 전장을 정하지 않았다.

인민이 사는 이 땅, 조국의 전 령토가 우리 군인들이 싸우는 최전방이였다. 병사들이 일떠세우는 창조물들은 하나하나가 불굴의 투쟁이 벌어지는 위훈의 고지였고 원쑤들에게 피붓는 증오의 불소나기였다.

한겨울의 강추위속에서도 세겹네겹의 덧집을 만들어 온 공사장을 뒤덮고 천여개의 난로를 들여앉혀 혼합물을 이기며 순간도 일을 멈추지 않던 불사신의 모습들, 피나게 미장칼을 놀리고 손바닥이 다 닳도록 바닥을 쓸고 또 쓸던 그 불덩이같은 군상들, 매 사람이 보통 30~40㎏의 물동량을 메고 100여리에 맞먹는 길을 매일같이 오간 《마대마라손》의 자욱자욱…

지휘관들도, 애어린 병사들도 교대없는 전투원이 되여 선채로 말뚝잠을 자는 순간에조차 손에서 놓지 않았던 미장칼은 그대로 우리 군인들이 틀어쥔 또 하나의 총대가 아니였던가.

수호의 전장을 비워놓고 벌리는 창조가 아니였다. 세계《최강》을 떠드는 원쑤, 이 행성의 가장 야수적인 침략자들과 승패를 겨루는 운명의 전장에 우리 군인들이 서있었다.

사람들이여, 아시는가.

화염이 치솟는 훈련장을 질풍같이 내달리던 용감한 싸움군들, 불줄기를 날리며 《적진》을 짓뭉개던 녀성포병들, 풍랑을 헤가르며 번개같이 돌진하던 전투원들, 최전연의 그 수많은 근위부대 용사들이 바로 창조의 전역에서 《마식령속도》,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건설의 대교향곡을 높이 울린 주인공들이였다는것을.

최전연의 전호가를 건설장과 이어놓고 하루밤에도 수백리 강행군을 하면서 수호와 창조의 두 전장을 종횡무진하던 병사들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도 만나보았다.

당앞에 결의다진 완공의 시간을 지켜 눈불일새 없었어도 수호자의 사명은 언제나 우리 병사들의 심장에서 떠날줄 몰랐으니 짤막한 휴식의 한순간에조차 그들은 훈련의 더운 땀을 뿌리지 않았던가.

가슴이 벌게 훈장을 달지 못했다 해도 이 땅에서 군인, 그는 누구나 머리숙여 존경해야 할 영웅이고 하늘높이 떠받들어야 할 은인들이다.

바로 그렇게 장장 수십년간 우리 조국이 군대의 피와 땀, 열정과 발걸음으로 인민의 행복의 탑을 쌓아왔고 번영의 대로를 열어왔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서해갑문, 무지개동굴, 울림폭포…

인민군대의 발자욱이 찍혀진 그 모든 전투장들을 합치면 그대로 조국번영의 지도가 되고 인민의 행복한 삶이 흘러온 로정도가 된다.

우리 군대는 자기의 창조물로써 이 땅에 수호의 장벽을 더 높이 쌓았다.

사랑이 없는 사명감은 그 수행에서 한계가 있지만 사랑으로 충만된 수호자의 심장은 기적의 힘을 낳는다. 만약 원쑤들이 이 땅에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는 자기의 살점과도 같은 인민의 재부,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죽음도 이기는 의지와 용맹으로 싸워 승리할것이다.

운명과 승패가 판가리되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에서 우리 인민군대가 추켜든 창조의 마치는 약자앞에서 짓는 강자의 웃음, 패배의 자리에 원쑤들을 꿇어앉힌 승리자의 장검이다.

세상에 군대는 많아도 늘어나는 창조의 재부와 더불어 자기의 위훈을 론하는 군대는 조선인민군밖에 없다.

아, 위대하여라.

뼈를 깎고 살을 에이면서, 한몸을 열조각, 백조각 내면서 인민을 등에 업고 사선천리, 불길만리를 넘고 헤치며 행복의 봄언덕, 문명의 높은 언덕에 올려세운 고마운 인민군장병들이여!

우리 력사의 갈피에 금문자로 새기리라. 인민을 위해 바친 그대들의 고귀한 피와 땀의 자욱자욱을.

인민이 드리는 감사의 꽃다발을 받으시라.

2

병사도 인민에게 회답편지를 띄운다.

쓰고싶은 말, 담고싶은 이야기 끝이 있으랴만 병사들이 꼭같이 터치는 진정의 웨침이 있다.

《우리야 인민의 군대가 아닙니까. 응당 할 일을 했을뿐입니다. 진정 감사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십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스스럼없이 터져나오는 심장의 이 메아리에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인민에 대한 사랑이 과연 어디서 샘솟는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있다.

우리 군대가 인민을 위해 높뛰는 피방울이라면 그 맥동이 과연 무엇으로 하여 그리도 줄기찬것이고 우리 군대가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타오르는 불길이라면 그 끝없는 열원은 무엇인가를 그 성스러운 부름이 다 말해주고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우리 병사들이 한목소리로 터치는 힘있는 군인선서와도 같고 자나깨나 심장에서 이글거리는 불덩이와도 같은 이 구호!

년대와 년대를 이어 울리던 병사들의 구호—《조국을 위하여 복무함!》에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더해주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시다.

총대도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 최고사령관도 인민을 위해 있다!

절세위인의 그 용암처럼 뜨거운 인민사랑의 세계에서 치솟는 불길, 그 위대한 심장의 태동이 낳은 고귀한 산아가 바로 우리 군대이거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시야말로 조국수호전선의 최고사령관이실뿐아니라 인민군대를 이끌어 강성조선의 행복한 래일을 건설해가시는 애국애민의 위대한 령도자, 창조와 건설의 최고사령관이시다.

돌이켜보면 우리 군대의 인민을 위한 복무의 첫 페지를 쓰신분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이시였다.

안도의 수림에서 탄생의 고고성을 터친 우리 혁명무력의 이름에 《인민》이라는 글발을 새겨주신 그 숭엄한 사랑의 세계가 파도쳐온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인민군대는 인민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건한 군대이라고 사명과 본분을 뼈속깊이 심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군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오시는 나날에 그이께서 줄기차게 펼쳐오신 창조의 대하는 또 얼마나 장엄했던가.

몸소 군인들의 건설현장에 찾아오시여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며 곁에 세워 사진도 찍어주시고 인민들에게 더 많은 웃감을 안겨주고 살기 좋은 우리 나라를 더욱더 잘사는 나라로 만들자고 고무격려하시던 그 자애로운 음성을 우리 정녕 잊을수 없다.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념원이 얼마나 간절하시였으면 군인들이 맡고있는 건설대상의 사판을 집무실곁에 놓으시고 하루도 번짐없이 그 거창한 투쟁을 이끄셨으랴.

혁명적군인정신!

시대의 불길로 타번진 이 불굴의 혁명정신이 과연 어디에서 창조되였던가. 다름아닌 우리 장군님께서 강성국가건설의 주력군으로 내세워주신 인민군대의 결전장에서였다.

험한 물길굴로 차를 몰아가시던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불멸의 군상으로 자리잡고 그렇게 시대의 거울로 찬연히 빛을 뿌린 병사들의 위훈은 그 얼마이던가.

《미래를 위하여 고난의 마지막해 1997》!

구월산유원지 옹벽에 한 병사가 써놓은 글발,

바로 그 글발에서 인민을 위해 불타는 군인들의 심장을 뜨겁게 안아보신 우리 장군님이시였기에 이 글을 잘 보존하여 구월산유원지를 건설한 우리 군인들의 영웅적투쟁을 길이 전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그리도 절절히 말씀하신것 아니랴.

정녕 불멸의 그 자욱자욱은 희천발전소 건설장의 석수흐르던 조압수조장에도 새겨졌고 전기불도 없는 어두운 굴간에서 식사를 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눈물속에 바라보시며 오래도록 승용차전조등을 비쳐주시던 무지개동굴에도 찍혀졌다.

그렇게 우리 군대의 인민복무의 력사가 흘러왔다.

군대는 최고사령관을 닮는다.

우리 병사들은 인민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치는 헌신의 자세를 아늑한 강의실이나 두툼한 책자의 글줄에서 배우지 않았다.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우리 원수님을 우러르면서, 그이께서 인민을 위해 하시는 말씀,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낮과 밤, 인민위해 걸으시는 그 걸음걸음에서 인민의 군대로서의 일감을 찾고 자신들이 올라서야 할 창조의 높이를 터득하였다.

장갑차를 몰아야 제격인 돌서덜밭으로도 서슴없이 차를 몰아가시며 행복의 새 터전을 잡아주시고 진탕길에 구두를 적시시며 공사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현지에서 직접 묘안을 가르쳐주시던 그 불같은 심중을 정녕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뜨겁게 체험한것이 우리 군대였다.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의 열매들을 안겨주고싶은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새로 무은 물고기배의 이름을 《황금산》호라고 지어주시였으랴.

우리 원수님처럼 인민을 사랑하자!

우리 원수님처럼 인민을 위해 한몸을 깡그리 바치자!

이런 불타는 신념이 있었기에 우리 군대는 《인민을 돕자!》라는 구호높이 건설의 대번영기도 앞장에서 펼쳤고 황금해의 새 력사도 열어나갔다.

이런 군대와 함께 싸우는것이 그리도 행복하시여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으실 때면 듣던중 제일 반가운 소식이라고, 역시 우리 장군님께서 손때묻혀 키우신 인민군대가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며 너무도 만족하시여 자리에서 일어서기까지 하시였다.

그이께 있어서 인민군대는 자신처럼 믿으시는 살붙이, 인민복무의 전장을 함께 달리는 제일전우이다. 그래서 그이께서는 인민이라는 성스러운 이름이 붙어있는 인민군대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또 하나 하자고 하시며 창조의 전장으로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함께 떠나시는것 아니던가.

그 숭고한 사랑, 불타는 정이 어린 믿음이 목숨처럼 귀중했기에 우리 군대는 설사 자기앞에 지뢰밭이 가로놓여있어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한명한명이 조국이 밟고 지나갈 징검돌이 되면서 비약의 새시대를 열어나갔다.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발사된 총탄처럼 단숨에, 터지는 수류탄처럼 맹렬히 우리 군인들을 돌진케 한 그 심장의 화약은 다름아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따르고 받드는 마음이다.

깊은 밤 천근만근으로 무겁게 내리감기는 눈까풀을 초인간적인 힘을 다해 들어올리며 《나무잎소리도 나를 부르는 소리 시내물소리도 나를 부르는 소리》라고 노래부르던 군인들이여,

바로 그런 충정으로 그대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 할수 없었던 모든것까지도 다 하였다.

그렇게 인민을 위해 뼈를 깎고 살을 저미면서 싸웠어도 우리 군인들이 그 어떤 대가와 보수를 바란적 있었던가.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서부터 쓰던 200군데나 기운 마대를 배낭에 소중히 간수하고있다는 한 녀병사, 인민을 위해 바친 그 땀방울이 진주보석보다 더 값지게 안고 사는 가장 큰 재보이고 인생의 더없는 표창이 아니였던가.

인민의 성의가 몸에 와닿을 때마다 우리 군인들이 한결같이 한 말—《우리에겐 물과 공기만 있으면 됩니다. 대신 노래나 불러주십시오. …》

굳이 우리 군인들이 바란 유일한 보상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껏 웃으며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이고 행복에 겨워 부르는 인민의 노래였다.

그 열화같이 뜨겁고 고결한 헌신의 세계에 뿌리를 두었기에 인민이 맛보는 행복의 열매는 그리도 달고 큰것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인민의 행복으로 가득찬 이 땅은 통채로 우리 군대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든 우리 당의 군대, 억척의 지지점으로 키워오신 절세위인들의 헌신의 기록장이며 인민사랑의 기념비이다.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이런 군대는 영원히 최강이고 언제나 승리한다.

영광이 있으라, 영웅적조선인민군이여!

그대들의 피와 땀 어려 우리 국가는 창공에 더 높이 휘날리고 인민의 모든 꿈은 꽃펴나리라.

* *

인민이 보내는 편지는 끝없이 계속되리라.

그 편지에 인민은 무엇을 쓰는가.

감사만이 아닌 맹세를 쓴다. 병사처럼 살 심장의 각오를 새기고 병사와 창조의 보폭을 함께 맞출 자신들의 모습을 담는다.

우리 군대처럼 당의 구상을 말로써가 아니라 과감한 실천으로 받들고 군대덕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손으로 만복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들일줄 아는 행복의 진짜주인으로 살며 투쟁하자.

병사여, 그대들을 따라 우리 영웅적으로 살리라.

그대들에게서 배운 결사옹위의 신념과 총폭탄정신으로 우리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잘 받들어나가며 그대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에서 배운 대담한 공격기질, 만능의 일솜씨로 더 높이, 더 빨리 강성조선의 행복의 큰집을 멋있게 지으리라.

바로 그래서 그대들앞에 떳떳한 인생이 되고 조국앞에 당당한 애국자가 될 때 위훈의 편지도 함께 띄우리라. 새하얀 종이만이 아닌 사랑하는 내 조국땅우에 창조의 자욱자욱, 애국의 땀방울로 그대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리라.

박옥경, 리 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태권도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룡와이맹 국제태권도련맹 부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태권도대표단을 만나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청년탄부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청년동맹사업을 당사업의 한 부분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운동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짜고들고있다.

얼마전 한 갱에 내려간 초급당위원회일군은 작업의 쉴참에 청년탄부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들을 고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로 키워낸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 보내주신 감사문의 내용을 해설해주면서 청년들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다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지금 이곳 청년탄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연전행

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의 앞장에 서시여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응우선생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은 만경대혁명가문의 가풍이다.

지금으로부터 백수십년전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앞장에 서시여 우리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침략선 《셔먼》호를 격침시키신 열렬한 애국자 김응우선생님,

한생을 애국애족의 넋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김응우선생님의 탄생 167돐을 맞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서는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치 않는 철의 진리가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그것은 바로 조선민족의 존엄을 짓밟고 노예의 운명을 강요하려고 덤벼드는 침략자들은 무자비하게 징벌해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는 자기 인민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의 업적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그들의 위훈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세워진 침략선 《셔먼》호격침기념비앞에 서면 홰불을 높이 추켜드시고 투쟁의 앞장에 서시여 인민들을 원쑤격멸에로 부르시던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응우선생님의 모습이 숭엄히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증조할아버지는 남의 묘를 봐주는 산당지기였으나 나라와 향토를 열렬히 사랑하는분이시였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1848년 6월 17일 평양 중성리(당시)에서 탄생하시여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으시던 김응우선생님께서 생활이 너무도 곤난하여 지주의 묘를 보아주기로 하고 산당집을 한채 얻어 만경대로 이사하신것은 1860년대였다.

예로부터 만경대의 풍치수려함을 탐내여 돈냥이나 있는 부자들과 벼슬아치들은 이 일대의 산들에 경쟁적으로 조상의 묘를 쓰고있었다.

그 시기 우리 나라의 농촌마을 그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었던 추녀낮은 만경대초가집에서 가난속에 살아오시면서 봉건관료배들과 지주 그리고 외래침략자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신 김응우선생님이시였다.

소작살이를 하면서도 남달리 정의감이 강하고 애국심이 높으시였던 선생님께서는 늘 일가분들과 마을사람들에게 봉건관료배들과 지주놈들의 착취적본성에 대하여 깨우쳐주기도 하시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슬기롭고 용맹한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력사에 대하여 차근차근 이야기해주기도 하시였다.

하기에 만경대인민들은 애국심이 남달리 높고 봉건관료배들과 외래침략자들에 대한 항거의 정신이 누구보다도 강하신 김응우선생님을 무척 존경하며 따랐다.

김응우선생님의 불같은 애국심은 침략선 《셔먼》호를 불살라버리는 투쟁에서 뚜렷이 발현되였다.

1866년 8월, 침략선 《셔먼》호의 침입은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피묻은 침략력사의 서막이였다.

오래전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미제는 중무장한 침략선 《셔먼》호를 우리 나라에 침입시키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저들의 기술장비상태를 믿고 허장성세하면서 대동강을 거슬러올라와 갖은 만행을 다하였다.

김응우선생님께서는 대동강에 기여든 미제가 감행한 횡포무도한 만행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시며 만경대와 그 주변인민들을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침략선 《셔먼》호가 두루섬에 정박하고있을 때 김응우선생님께서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집집에 있는 바줄을 다 모아 강건너 곤유섬과 만경봉사이에 겹겹이 건너지르고 돌을 굴리면서 침략선의 앞길을 가로막으시였다.

김응우선생님께서는 썰물과 밀물의 차이가 심한 대동강흐름의 특성과 우리 선조들의 투쟁경험에 기초하여 화공전술로 적을 소멸할것을 발기하시였다.

김응우선생님의 발기는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김응우선생님의 지도밑에 평양성인민들은 관군과 함께 썰물때를 기다리다가 나무단을 가득 실은 불배를 《셔먼》호쪽으로 띄워 내려보내여 가증스러운 침략선과 적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안기고 모조리 대동강한복판에 수장해버리였다.

침략선 《셔먼》호는 당시로서는 발전된 무장함선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해외침략력사에는 중무장한 전투함선이 그 어느 나라에서도 격침된적이 없었다.

침략선 《셔먼》호의 격침, 그것은 그 어떤 불의와도 추호의 타협을 모르는 우리 인민의 의지와 기상을 남김없이 떨친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이였다.

《셔먼》호가 격침된 후에도 미제침략자들은 배의 행방을 알아본다는 구실밑에 또다시 군함 《쉐난도아》호를 대동강하류에까지 침입시켜 살인, 방화, 략탈을 일삼았다.

이때에도 김응우선생님께서는 만경대와 그 주변인민들로 의병을 조직하시고 관군들에게 인민들의 투쟁에 합세해나설것을 호소하심으로써 놈들을 쳐물리치는데 크게 기여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도 그날의 격전을 잊지 못하고있으며 김응우선생님의 고귀한 애국애족의 넋을 이어 조국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투쟁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우리의 귀중한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 미제와 반동들,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의연히 계속되고있으며 날이 감에 따라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지금도 미제와 괴뢰역적패당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헐뜯다 못해 우리 공화국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는 무분별한 도발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원쑤들은 저들에게 차례질 비참한 운명에 대하여 모르고 함부로 미쳐날뛰고있다.

정세가 긴장할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는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배짱이 더욱 굳건하게 자리잡고있다.

만경대혁명가문의 애국애족의 혈통을 삶과 투쟁의 피줄기로 이어받은 우리 천만군민의 위대한 정신력을 꺾을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

필승의 보검인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위대한 애국의 력사를 수놓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고 그이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일심의 천만대오가 있어 우리 조국은 더욱 부강번영할것이며 만경대혁명가문의 애국애족의 뜻은 이 땅우에 더욱 찬란히 꽃펴날것이다.

전광남

백두대지에 단숨에의 기상 세차게 나래친다

백두산선군청년2호발전소건설장에서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며 폭풍치라

조선인민군 류철수소속부대의 군인들

2호발전소건설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발전기실, 조압수조, 옥외변전소공사를 맡은 조선인민군 류철수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에게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속에 희천전역에서 새로운 시대속도, 희천속도를 창조한 남다른 영예와 긍지가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백두대지의 새로운 전투장으로 달려와 불과 한달도 못되는 기간에 발전기실하부구조물콩크리트치기, 방수로옹벽콩크리트치기, 조압수조바닥굴착 및 콩크리트치기를 끝내고 5일만에 발전기실벽체쌓기를 단숨에 해제낀 부대장병들의 가슴마다에는 인민군대의 새로운 공격속도를 앞장에서 창조할 만만한 투지가 차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조국보위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전선과 주요전구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만족을 모르고 언제나 앞장에 서야 합니다.》

조압수조공사를 맡은 방명철소속구분대앞에는 처음부터 예상치 않았던 난관이 막아나섰다. 5월 상순이라고 하지만 랭기를 풍기는 수직갱의 바닥은 암반이 얼음과 한덩어리를 이루고있었다. 수직갱의 옆벽면들에 이미 콩크리트피복을 입힌 후여서 암반굴착을 위한 발파를 진행할수가 없었다.

손에손에 못정과 지레대, 함마를 굳게 틀어잡은 군인들이 주저없이 암반굴착전투에 달라붙었다. 갱바닥의 곳곳에 각기 전투좌지를 정하고 하나둘 구령밑에 힘차게 들이대는 함마질소리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울려퍼졌다.

자기 교대시간에 1인당 0.5㎥씩, 이런 높은 목표를 내걸고 군관 김죽송, 사관 원철주동무들이 앞장에 섰다. 지휘관이 기세좋게 들이대는 함마질에 탕탕 튀여오르는 못정을 슬슬 돌려가며 사관이 호응하는 목소리, 얼마후에 돌쪼각과 얼음쪼각들이 땀배인 얼굴이며 작업복에 달라붙고 그로 하여 작업장의 온도는 떨어졌지만 결사관철로 맥박치는 그들의 심장의 열기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다.

군관 박영남, 병사 남일진동무를 비롯한 군인들도 그들에게 뒤질세라 윽윽 기세를 올리며 함마질소리를 높여나갔다. 그런데 몇시간이 못 가서 못정과 지레대의 끝이 무디여지기 시작하였다. 분초가 천금같이 귀중한 그 시각 갱입구로 뛰여나간 지휘관이 지체없이 모닥불을 피웠다. 무디여진 못정과 지레대를 벼리는 전투가 동시에 벌어졌다. 항일유격대의 병기창에서 울리던 자력갱생의 메질소리가 그대로 이곳 전투장에서 세차게 울려퍼지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구분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연 15일간의 치렬한 돌격전으로 끝내 230㎥의 암반을 뜯어낸데 이어 바닥콩크리트치기를 와닥닥 해제끼는 첫 승리를 안아왔다.

임명석소속구분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도 모든것에 앞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앞당겨 끝내기 위하여 비상히 높이 세운 전투목표만을 생각하였다.

지난 5월 하순 시공상 제일 복잡한 층막타입전투때였다. 90㎥의 콩크리트타입량은 구분대의 로력을 타산하면 이틀이상 걸려야 할 작업량이였지만 이곳 지휘관들은 기술공정상요구대로 12시간안에 끝낼 목표를 내걸었다. 그 담보는 오직 하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할 열의로 충만된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것뿐이였다.

전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이 진공적으로 벌어지는 속에 군인 한명이 보통때의 세몫, 네몫씩의 일감을 안고 뛰고 또 뛰였다. 한대밖에 없는 혼합기에 의존하여서는 혼합물생산을 따라세울수 없다는것을 포착한 군관 리철룡동무를 비롯한 군인들이 세멘트와 골재를 맞들이에 담아들고 뛰고 또 뛰였다. 8개의 맞들이조가 그야말로 치차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혼합물을 이기는 삽날마다에서는 불꽃이 튕기였다. 혼합물생산량은 대뜸 4배이상 뛰여올랐다.

그에 발맞추어 2소대의 전투원들도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가며 혼합물운반과 다짐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군관 김금철, 사관 장기동동무가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군인대중을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였다. 땀이 비오듯 하고 얼굴과 온몸에 혼합물이 튀여올랐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결사관철의 12시간을 안고 쉼없이 달리고 또 달리였다. 현장치료를 나왔던 리수경동무도 남자들 못지 않게 혼합물을 그득히 담은 맞들이를 들고 돌격전에 뛰여들었다.

순간의 휴식도 없이 그야말로 치렬하게 벌어진 타입전투, 드디여 구분대의 군인들은 단 12시간만에 불가능하다던 층막타입을 높은 기술적요구대로 만족시켜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희천속도의 창조자들답게 완공의 그날까지 폭풍치며 단숨에, 이런 비상히 높은 사상적각오밑에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지난 5월의 하루하루를 기적창조의 나날로 줄기차게 이어왔다. 결과 부대별사회주의경쟁에서 단연 영예의 1등을 쟁취할수 있었다.

비상히 앙양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만단의 준비밑에 6월전투에 진입한 부대에서는 단 5일만에 높이가 10여m에 달하는 방대한 량의 발전기실벽체축조공사를 또다시 단숨에 해제끼였으며 지금은 내외부벽체미장공사와 조압수조방수미장에서 련일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명령받은 병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조선인민군 홍찬길소속부대에서

깎아지른 산락의 아래부분에 쌓여있는 방틀과 그우에 널려진 흙과 돌들, 바로 이것이 지난 5월초 조압수조뒤 산 옹벽공사를 5월말까지 끝낼데 대한 명령을 받은 조선인민군 홍찬길소속부대 군인들앞에 펼쳐진 광경이였다.

건설기계들이 도저히 붙을수 없고 세멘트와 혼석, 돌을 운반할 길조차도 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건을 타산하기에 앞서 부대의 전체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알았습니다!》, 이 한마디의 대답을 하고 용약 전투에 뛰여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불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부대가 받은 명령수행날자는 5월말까지, 하지만 부대적인 작전에 따라 옹벽구간을 절반씩 맡은 리신철소속부대와 김정남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단 보름동안에 방대한 공사량을 해제낄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 그 어떤 조건을 타산하기에 앞서 보름기간을 하루하루 쪼개여 일별전투목표를 내걸었고 부대, 구분대별로 하루작업과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립체적인 전투조직을 따라세웠다.

부대별로 버럭처리와 동시에 세멘트와 골재 그리고 막돌과 물을 운반하기 위한 전투가 경쟁적으로 벌어졌다. 김태희동무를 비롯한 부대정치일군들은 기동적으로 작성한 100가지이상의 현장정치사업방안에 기초하여 군인대중의 심장의 피를 펄펄 끓게 하는 화선식정치사업, 경제선동, 직관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무조건 관철할 일념안고 부대군인들은 단 며칠만에 인력으로 520㎥이상의 버럭을 퍼내고 수백m나 운반하여 옹벽공사를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놓았다.

혼석과 세멘트운반도 문제였지만 보다 어려운것은 석축공사에 필요한 막돌과 혼합용물을 현장까지 끌어올리는것이였다. 막돌과 물이 있는 서두수로부터 작업장까지는 수직높이로 60m, 산경사면을 따라 림시로 낸 우불구불한 길로는 300m이상이나 되였다. 하지만 완공의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길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는 군인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곡선길이 없었다.

김정남, 송석종동무를 비롯한 부대의 지휘관들이 군인대중의 앞장에서 무거운 막돌을 등에 지고 경사 35° 이상 되는 산길에 접어들었다. 그뒤를 따라 전체 부대군인들이 일부는 막돌을 안고 또 일부는 물지게를 지고 산으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김정남소속부대 구분대장인 김광혁동무는 며칠째 계속되는 전투로 하여 손가락과 어깨가 돌에 찢기고 피멍이 들었다. 부대지휘관들과 군인들이 하루라도 쉴것을 권고하였지만 그의 대답은 오직 하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기 전에는 전투장을 떠날수 없다는것이였다. 열백마디의 말보다 《나를 따라 앞으로!》의 실천행동으로 하루에도 수십차례 산을 톺아오르는 지휘관의 모습은 군인들을 분발시키였고 결과 구분대는 하루작업과제를 매일 1.2배이상 넘쳐 수행하며 부대의 앞장에서 달려나갔다.

리신철소속부대에는 전투기간 돌장수로 소문난 병사 김인준동무가 있다. 옹벽공사 전기간 남들보다 곱절이나 되는 큰 막돌들을 자진하여 운반한 그의 어깨와 허리에는 성한 곳이라고는 찾아볼수가 없을 정도였다. 바로 이 길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에 하루빨리 안기는 길이라며 격정을 토로하는 그앞에서 휴식을 명령하던 부대와 구분대의 지휘관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 한몸 그대로 옹벽이 되여서라도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면 그만이라는 충정의 마음을 안은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어찌 그들뿐이랴. 군관들인 박남호, 김광남, 사관 류혁철동무를 비롯한 부대의 수많은 군인들이 오직 《알았습니다!》의 대답을 마음속에 안고 교대가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 또 벌리며 그야말로 자기의 피와 땀을 옹벽공사에 깡그리 바쳐나갔다.

불과 보름이라는 기간에 등짐으로 져나른 근 5 000㎥의 막돌과 60여㎥의 물 그리고 70여t의 세멘트와 150여㎥의 골재, 그것은 옹벽쌓기공사를 위한 자재량이기 전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부대군인들의 충정의 산물이였다.

백암지구에 굽이치는 원민열풍

난데없이 솟아오른 거름더미

지난 5월초 백암군 동계협동농장의 일군들은 운수수단이 부족하여 감자밭거름실어내기를 일정대로 내밀지 못하고있었다.

침수지역 살림집건설로 이 지구에 전개된 조선인민군 서영철소속부대의 지휘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였다. 즉시 부대적인 협의회가 진행되였고 짧은 기간에 농장의 감자밭들에 거름을 전부 실어내기 위한 긴급전투가 조직되였다.

살림집건설을 위한 블로크와 기와생산과제가 매우 긴박한 속에서도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기동적이며 립체적인 작전밑에 부대의 운수수단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수백t의 거름을 전부 밭들에 실어냈다.

자기 모습을 일신한 유치원

조선인민군 홍찬길소속부대의 지휘관들이 지난 5월 중순 유평지구의 어느 한 유치원을 찾았다. 우리 어린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전국의 애육원, 육아원들을 행복의 보금자리로 전변시켜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무엇인가 자기들이 할 일을 찾고싶은 마음에서였다.

다음날부터 부대의 수십명 군인들이 유치원을 보다 훌륭히 꾸려주기 위한 전투에 달라붙었다. 유치원의 주변을 번듯하게 정리하고 건물벽체를 보수하는 등 내외부를 완전히 일신시켜주었으며 산골마을의 특성에 맞는 야외놀이기재들도 성의껏 제작설치해주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성실한 땀방울을 바쳐가는 군인들에게 원장을 비롯한 유치원의 교양원들이 고마움을 금치 못해할 때면 그들은 하나같이 대답했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군대입니다.》

남새밭이 전하는 사연

유평지구에 자리잡고있던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황해남도려단의 전투원들은 새로운 전투초소인 1호발전소건설장으로 이동하며 자기들의 숙소를 고스란히 조선인민군 최광철소속부대의 군인들에게 넘겨주었다.

5월 중순에 들어와 부대 숙영지부근의 밭들에서는 남새들이 우쭉우쭉 자라 어느덧 파란 잎새를 펼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즉시에 전투현장에 전개한 부대장병들에게 있어서 그 남새는 식생활에 적으나마 보탬이 될수 있었다. 하지만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그 첫 물남새를 고스란히 수확하여 1호발전소건설장에 보금자리를 편 황해남도려단 청년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었다.

뒤에는 아득한 산봉우리가 치솟아있고 앞에는 서두수의 물소리 랑랑한 여기는 조선인민군 최광철소속부대 살림집건설전투장이다.

불과 한달전만 하여도 자그마한 소로길만 나있던 이곳에 지금은 수십동의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빠른 속도로 일떠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자기 부모형제들을 위하고 자기 집뜰안을 꾸리는 심정으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 인민의 군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건설장 어디서나 불이 인다. 혼합물을 이기는 군인들이 번개같이 삽질을 한다. 한더미씩 빠른 속도로 계속 이겨놓아도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지 모른다.

옆에서는 맞들이에 블로크를 담은 군인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있다. 그들의 투쟁에 화답하듯 대형화물자동차들도 련속 골재를 들이댄다.

하지만 그것도 잠간이다. 산더미같이 골재를 부려놓아도 눈한번 꿈쩍하는 사이면 바닥이 난다. 그와 함께 살림집벽체는 눈에 띄게 쭉쭉 올라간다.

현지보도 여기도 백두전역

조선인민군 최광철소속부대 살림집건설전투장에서

부대적인 사회주의경쟁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김두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영예의 우승테프는 자기들이 끊겠다는 만만한 배짱으로 공사를 다그치고있다.

살림집벽체를 얼핏 보아도 깐진 솜씨가 알린다. 군관 박진관, 한정식, 김광일, 김명일, 윤영학, 리종길동무들이 서로서로 조를 무어 블로크를 쌓아나가고있다. 혼합물을 벽체우에 쏟으면 능숙하고도 재빠른 솜씨로 일매지게 편다. 그러면 기다렸다는듯 블로크가 그 자리에 놓인다. 그러면 또다시 블로크를 두드리는 가락맞는 소리…

혼합물을 빨리 놓으라는 재촉이다. 아무리 빨리 블로크를 놓아도 편차는 1㎝도 없다. 옆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벽체는 자막대기를 대고 금을 그은것 같다.

한창 기세가 올라 작업을 지휘하던 부대일군 김두선동무가 우리를 보고 말한다.

《우리는 발전소언제를 쌓는 심정으로 살림집건설에 달라붙었습니다. 집앞에 터밭을 조성하고 가을남새까지 심어놓아 새 집에 입사하는 인민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해주려고 합니다.》

역시 인민군대가 다르긴 다르다는 생각이 가슴에 마쳐온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다. 그러나 군인들은 순간도 작업을 중단하지 않는다. 비닐박막을 펼치고 그밑에서 계속 전투를 벌린다. 불바람이 몰아쳐도 두려운것 없는데 하물며 이쯤한 소나기야 하는 배포들이다.

살림집벽체는 어느새 마지막 돌기에 이른다. 그럴수록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진다. 이곳 백두전역에서도 인민군대의 단숨에의 기상을 떨치려는 부대군인건설자들의 불타는 열의가 가슴에 뜨겁게 안겨온다. 시간을 다투며 달라지는 건설장의 모습, 진정 그것은 머지않아 완공된 살림집들에 들어서게 될 인민의 웃음넘친 모습으로 우리의 가슴에 안겨온다.

인민을 위함은 우리의 본분

조선인민군 최광준소속부대 군인들

백두대지의 산발들을 굽이돌아 용용히 흐르는 서두수, 푸른 물 출렁이는 여기 서두수기슭에 복무의 순간순간을 위훈의 자욱으로 수놓아가는 조선인민군 최광준소속부대 군인들의 인민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이 새겨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이름에 〈인민〉이라는 글자를 새긴 때로부터 조국의 수호자로서뿐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부강조국건설에도 뚜렷한 자욱을 남겼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고 현장에 도착한 부대군인들은 순간도 지체함이 없이 말은 좌안옹벽쌓기공사에 착수하였다.

여기 백두전역에서도 조선속도를 창조해나가는 인민군대의 기질과 본때를 보여주자. 이것이 부대장병들의 심장속에 소용돌이치는 불같은 열의였다.

부대는 옹벽기초굴착공사에서부터 혁신을 창조해나갔다. 길이가 수백m에 달하는 굴착공사를 하자면 허리치는 물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었다.

북부고산지대에서 생활해본 사람들은 5월초의 산골물이 어떤지 잘 안다. 살을 에일것 같이 차디찬 물속에서는 5분도 견디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군인들에게는 불보다 더 뜨거운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인민에 대한 사랑이였다.

사품치는 강물이 아니라 대하가 막아선다 해도 인민을 위한 창조의 길을 걷는 인민군군인들을 멈춰세울수 없었다.

군인들은 서슴없이 물속에 뛰여들었다. 그들에게는 뼈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도, 참기 어려운 육체적부담도 문제로 되지 않았다.

우리 군대를 왜 인민의 군대라고 하는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왜 인민군대를 여기에 불러주시였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사품치는 물속에서도 병사의 심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당의 전투명령은 곧 절대불변의 진리, 승리이라는것을 우리가 보여주자!》,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백두대지에 조국의 만년재부를 더욱 훌륭히 일떠세우자!》라는 힘있는 글발들이 전투장에 나붙고 화선식정치사업이 진공적으로 벌어졌다.

《우리 군인들은 조건타발이라는 말자체를 모릅니다. 억수로 내리던 비도 맞받아나가니 멎더란 말입니다.》 어느 지휘관이 흔연히 웃으며 한 말은 결코 형상적인 표현이 아니다. 오직 공격만을 아는 우리 군인들에게는 그 어떤 시련도 길을 내주고야말았다.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심장에 간직한 군인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며 힘찬 투쟁을 벌려 한주일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수백㎥의 토량을 처리하고 기초굴착공사를 완전히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부대의 장병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옹벽쌓기에 달라붙었다. 눈에는 익고 손에는 설다는 말과 같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경험은 또 하나의 도전이 아닐수 없었다. 전문건설을 해보지 못한 사실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 최상의 질과 공사기일을 동시에 보장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것은 자명했다.

허나 그들은 인민의 군대였고 인민의 아들딸들이였다. 인민을 위한 불타는 마음만 있다면 부족한 경험이 무슨 대수이겠는가.

지휘관들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구호밑에 군인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켰다.

부대참모부에서는 전체 장병들에게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 후 모두가 시공의 요구대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교양사업의 도수와 요구성을 최대한 높여나갔다. 단 1㎝의 편차도 허용되지 않았고 미세한 흔들림도 그냥 넘어갈수 없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시공을 맡은 군관 유정웅동무는 완성된 구간을 돌아보다가 장석에 금이 간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아마 올라온 부분을 다스리다가 너무 세게 내리치는바람에 깨진 모양이였다. 그대로 지나칠수도 있었지만 군인의 량심이 허락치 않았다.

《군인의 손은 억세기도 해야 하지만 인민을 위한 창조물을 세울 때는 한없이 부드럽기도 해야 하오. 힘들어도 다시 합시다.》

인민을 위한 길, 바로 그 길이기에 군인들은 불과 한달 되나마나한 기간에 수백m구간의 옹벽쌓기를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였다.

마치 포장도로를 옆으로 세워놓은것 같이 매끈하고 흠잡을데 없는 옹벽을 바라보면 거기에 스며있는 군인들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을 폐부로 느낄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인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든 사랑과 정을 다하여 아끼고 내세우시는 그 인민을 지키고 또 그들의 행복을 자기 손으로 창조하는 길에서 참된 삶을 빛내여가는 인민의 참된 아들딸들이 바로 우리 군대이다.

지금 맡겨진 공사과제를 단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겨 수행하기 위해 결사의 투쟁을 벌리고있는 부대군인들의 건설장에서는 포성없는 격전의 분과초가 흐르고있다. 승리는 이미 담보되여있다.

건설장의 작식대원들

조선인민군 최광철소속부대의 종업원인 김명희동무는 성의껏 마련한 2마리의 돼지를 끌고 부대의 숙소를 찾아와 스스로 편제없는 작식대원이 되였다. 서두수호안석축공사장의 붕락구간을 맡아 긴장한 전투를 벌리는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을 하루에도 수차례나 찾으며 밤참도 안겨주고 공사장주변도로옆에 코스모스를 심고 성의껏 가꾸고있다.

그만이 아닌 부대의 리명옥, 김성실, 리순희, 임금화동무들도 최고사령부의 작식대원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안고 건설장에 달려와 군인들의 어머니, 맏누이가 되여 자신들의 진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조선인민군 류철수소속부대의 전투장에 가면 임명석소속구분대 군관들의 안해인 지윤숙, 리선옥동무들이 있다. 땀배인 군복도 빨아주고 옷수리도 해주는가 하면 군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들끓는 건설현장에 달려나가 혼합물운반전투에 참가하며 그들은 거듭 부탁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발전소완공의 보고를 드릴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겨주십시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건설장에 필요한 세멘트를 제때에 실어보내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청진항에서—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자

오만자루의 품을 들이자

자강도당위원회 사업에서

지난 5월말이였다. 자강도당위원회 일군들은 커다란 격정에 휩싸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들을 고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로 키워낸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 보내주신 감사문을 받아안았던것이다.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가슴마다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았으니 그들의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정치를 정히 이으시여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맹세로 심장들은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전국의 모든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당, 군, 청 중시사상을 확고히 틀어쥐고 사회주의조국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문제인 청년사업에 품을 아끼지 말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청년운동발전을 위한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뜻과 절절한 당부가 뜨겁게 맥박치는 감사문의 구절구절을 되새길수록 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의 가슴은 흥분으로 설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청년사업에 오만자루의 품을 들이자.

이렇게 결심한 도당책임비서는 우선 당일군들이 감사문에 어려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 비서들이 담당부서의 일군들속에 들어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령도업적을 침투시키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청년들을 선군혁명의 척후대, 익측부대로 내세우시고 청년중시정치의 새로운 경륜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는데 힘을 넣었다.

그 과정에 도당일군들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청년들을 혁명의 주력부대로 내세우시고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오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 일떠서게 되였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그리고 청년사업에 오만자루의 품을 아낌없이 바치는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게 되였다.

한편 도당책임일군들은 도안의 청년동맹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큰 힘을 넣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넘친 감사문을 받아안은 날 도당책임일군은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청년동맹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였다. 그 과정에 나이상관계로 청년동맹사업을 마치게 되는 일군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문제, 모범적인 청년동맹일군들에 대한 정치적평가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였다.

도당책임비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도당위원회 해당 부서 일군들의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회의에서는 청년사업이 당사업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이라는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되고 해당 부서들이 배합작전, 협동작전을 긴밀히 벌려 청년동맹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 풀어주기 위한 대책들이 세워졌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건설장들마다에서 청년들이 활개치며 위훈을 세우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사업도 면밀한 계획밑에 전격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흥주청년3호발전소, 장자산소년단야영소,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대상건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치고있는 청년돌격대원들속에 들어간 부장 리명현, 부부장 최원욱동무를 비롯한 도당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 솔선 어깨를 들이밀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청년돌격대기발이 세차게 나붓기는 도안의 중요대상건설장들마다에서는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고 조국의 만년재부, 청춘의 기념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청년선구자들의 미풍을 불씨로 하여 도안에 긍정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는 사업에도 깊은 주목을 돌리고있다.

강계시에서 살면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산골군에 있는 학교의 분교들로 자원진출할 때였다.

도당책임일군은 해당 단위의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이 결의모임, 환송모임 등을 의의있게 조직하도록 하는 한편 진출자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도 통이 크게 벌리도록 하였다.

얼마전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에 참가하였던 20여명의 청년들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치고있는 청년돌격대원들속에 들어간 부장 리명현, 부부장 최원욱동무를 비롯한 도당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 솔선 어깨를 들이밀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청년동맹조직들이 청년들속에서 발휘되는 미풍들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참신하게 벌리도록 이끌어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중시정치를 높이 받들고 청년사업에 더 많은 품을 들이려는 도당위원회 일군들의 결심과 각오는 날이 갈수록 억세여지고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청년들속으로!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들을 고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로 키워낸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 보내주신 감사문은 온 나라 당일군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

함경북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의 격동된 심정을 들어보자.

《청년사업을 당사업 못지 않게 중시하고 밀어주자!

도안의 당일군들모두가 이런 관점을 지니고 청년동맹조직들에로, 청년들속으로 깊이 들어가고있다. 청년들과의 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문을 심장에 새겨안고 당적지도를 더욱 짜고들겠다.》

이것은 그의 심정만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온 나라의 모든 당일군들이 분발하여 떨쳐나섰다. 청년들의 성장에 훌륭한 밑거름이 되여주고 억센 기둥이 되여주는 당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선군시대의 훌륭한 젊은이들로 자라나고있다.

◇ 청년중시! 이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영원한 전략적로선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중시는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영원한 전략적로선입니다.》

생전에 우리 장군님께서 간곡하게 하신 당부가 있다.

청년문제를 옳게 풀어 청년들을 당의 참된 청년전위로, 사회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울 때에는 당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당도 무너지고 사회주의위업도 말아먹게 된다. 우리는 청년문제를 언제나 당의 운명, 사회주의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보고 청년운동을 발전시켜 모든 청년들이 당과 운명을 함께 하는 참된 청년전위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믿음직한 역군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청년문제의 중요성과 그 해결의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청년사업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걸음걸음 따뜻이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에 이어 지난 5월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 보내주신 감사문에서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우리 당은 청년동맹사업을 당사업 못지 않게 중시하고있다. 청년중시는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영원한 전략적로선이다!

절세위인들의 청년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바로 영광넘친 조선청년운동의 어제와 오늘이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 청년들속으로! 바로 여기에 당조직들이 청년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는 근본비결이 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청년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밖에 모른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지닌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로 키워야 한다. 5대교양을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려 청년들을 당이 바라는 참된 인간, 선군시대의 훌륭한 젊은이들로 키워내야 한다.

당일군들은 청년동맹조직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이는데 주목을 돌리고 청년들이 활개치며 위훈을 세울수 있도록 각방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들을 대담하게 맡기고 제힘으로 끝까지 해내도록 고무해주며 청년들속에서 제기되는 창발적인 의견들을 적극 지지해주고 실천에 옮기도록 떠밀어주어야 한다.

청년들을 굳게 믿고 청년들이 강성국가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시고 의지이시다.

당일군들이여, 청년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의 사업을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우리의 모든 청년들을 당의 사상과 의지로 숨쉬며 당의 두리에 성벽을 이루고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더욱 억세게 키워나가자!

자립성, 창발성을 높여주는 좋은 계기로

수안군 수덕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수안군 수덕리에는 자랑많은 돌격대가 있다.

100여명의 청년동맹원들로 무어진 이 돌격대는 군적으로 가장 힘있고 전투력이 있는 집단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이것은 리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그들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는 리당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몇해전 어느날, 리당비서 홍길동동무는 리초급청년동맹일군과 함께 청년분조를 찾았다.

당시 청년분조에서는 공공건물건설이 진행되고있었는데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알고보니 로력도 긴장하고 자재도 부족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설을 맡은 초급청년동맹일군들부터가 신심이 없어하는것이였다.

리당일군은 청년들을 믿고 큼직한 일감을 맡겨주는데 그치고 그들의 자립성을 키워주는데는 깊은 관심을 돌리지 못한 자기 사업의 빈 공간을 느끼게 되였다.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그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줄수 있는 사업조건을 잘 보장해주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리당일군은 리초급청년동맹일군에게 리안의 청년동맹원들로 돌격대활동을 벌려 청년분조의 공공건물을 보란듯이 일떠세울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곧 돌격대가 조직되였다.

공사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 시작하였다.

리당일군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초급청년동맹일군들을 자주 만나 건설도 중요하지만 청년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맛이 나게 참신하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청년일군들의 역할이 높아지니 청년돌격대원들의 열의도 높아졌다.

청년돌격대원들은 어렵고 힘겨운 과제를 맡겨주어도 번개같이 해제끼군 하였다.

이 나날 그들은 단합된 힘으로 청년학교, 침실과 식당, 농기구창고를 비롯한 공공건물들을 짧은 기간에 건설하였다.

한편 작업반들을 순회하면서 거름실어내기, 모내기, 김매기 등 영농공정별전투에서도 돌파구를 열어제꼈다.

이밖에도 소재지마을의 수백메터의 울타리쌓기, 버섯공장건설, 길이가 100m나 되는 큼직한 무난방온실건설, 후민산카리비료공장건설 등 청년돌격대가 해놓은 일은 많다.

최근에도 청년돌격대활동이 자주 진행되고있는데 이 기간은 청년동맹원들을 실천속에서 억세게 키우는 혁명학교과정으로 되고있다.

그리고 초급청년동맹일군들에게는 청년동맹원들과의 사업에서의 자신들의 수준을 한계단 높이는 과정으로 되고있다.

이처럼 청년돌격대활동이 그대로 청년동맹조직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주는 좋은 계기로 되게 한 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은 본받을만 하다.

본사기자 장철범

왜 경축무대를 옮겼는가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 당위원회 사업에서

거의 1년이 흘러갔다. 하지만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해의 청년절경축무대를 잊지 못하고있다.

지울수 없는 추억을 남긴 청년절경축무대, 여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사업을 당사업의 한 부분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몇해전이였다. 청년들과의 사업을 보다 참신하게 할 방도를 모색하던 당비서 오응천동무의 생각이 청년절에 진행되는 행사에 가닿았다. 이전에는 청년들이 준비한 예술소품공연을 종업원들에게 보여주고 체육경기를 보장해주는것으로 만족해왔었다.

(정의감이 강하고 아름다운것을 열렬히 지향하는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청년절경축행사를 조직한다면 실효가 크지 않겠는가.)

긍정적소행에 대한 소개와 예술공연을 배합하여 특색있는 청년절경축무대를 조직하자는 당비서의 발기를 당위원회, 청년동맹일군들은 물론이고 행정일군들도 적극 지지해나섰다.

어버이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처음으로 맞이한 청년절에 진행한 경축무대 《태양과 청춘》에 대한 대중의 반영은 좋았다. 형식이 새롭다. 우리 공장청년들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였다. …

그런데 의견도 제기되였다. 그런 훌륭한 모임에 왜 일부 사람들만 참가시키는가.

옳은 의견이였다. 대중의 이 의견을 들으면서 당일군들은 자기 사업을 심각하게 돌이켜보았다.

물론 공장문화회관의 좌석수가 제한되여있는것만은 사실이였다.

하지만 그들은 원인을 거기에서 찾지 않았다. 바로 자기자신들의 굳어진 사업방식, 청년사업에 대한 근시안적인 관점과 태도에서 찾았다.

경축무대를 옮기자.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광범한 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인식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의 열의를 더욱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이렇게 결심한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지도표식비앞 드넓은 교양마당을 경축무대로 정하였다. 위원장 정명진동무를 비롯한 청년동맹위원회 일군들과 힘을 합쳐 준비사업에 품을 들이였다.

당, 근로단체일군들만이 아니라 각 직장의 일군들도 청년절경축무대를 준비하는데서 걸린 문제들을 스스로 알아보고 진심을 바쳤다.

수천명이나 되는 종업원들이 꽉 들어찬 현지지도표식비앞 넓은 교양마당에 드디여 청년절경축무대가 펼쳐졌다.

《조선청년행진곡》합창으로 시작된 무대에 청년미풍선구자들이 나섰다.

청년절경축행사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더없는 영광을 지닌 생필직장의 오시환, 공무동력직장의 홍경철동무들은 물론이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뜨거운 충정을 바친 청년들, 금수산태양궁전 무리등제작과 대상설비생산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청년들이 저마다 무대에 올라 시대의 선구자로 값높은 삶을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그들자신이 부르는 충정의 노래, 청년들을 축하하는 공장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노래소리가 온 공장을 진감했다.

실효가 대단하였다. 청년들은 물론이고 종업원들모두가 공장의 곳곳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 청년들에 대한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다시금 뼈에 새기였으며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받은 공장의 영예를 빛내일 불타는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경축무대를 넓은 곳으로 옮겨 얻은 소득은 컸다. 우선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 사기가 부쩍 높아졌다. 보다 큰 소득은 청년들에 대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것이였다.

온 공장에 청년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내세워주는 기풍이 확고히 수립되였다.

이것은 혁신으로 이어졌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요구하는 전기기구 및 설비생산에서 청년들은 선군청년전위의 본때를 남김없이 떨치였다.

버섯생산기지건설 등 공장의 후방사업토대를 갖추기 위한 전투도 청년돌격대가 말아 본때있게 해제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 금야청년탄광 등 어렵고 힘든 전구들에 달려나간 공장의 청년들이 혁신자로 이름떨치게 되였다.

청년들과의 사업은 몇몇 당, 근로단체일군들에게만 한한것이 아니다. 청년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여줄 때, 청년중시가 사회적기풍으로 확립될 때 청년영웅, 청년미풍선구자들의 대오는 무성한 숲을 이루게 될것이다. 이것이 지난해 청년절경축무대를 통하여 일군들이 내린 결론이다.

본사기자 김향란

보람찬 오늘의 대고조전투에서 청년들이 앞장에 서도록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청년들을 믿고 내세워주어

안악군 신촌리당위원회에서 청년들을 적극 내세우고 계발시키는 사업을 잘하고있다.

농장에 3층짜리 새 학교건설과업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리당위원회는 청년들을 대담하게 믿고 그들에게 학교건설을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청년돌격대원들은 학교건설에 착수한 첫날부터 불꽃튀는 전투를 벌렸다.

지난해 12월 추위가 닥쳐오면서 건설장에 난관이 조성되였을 때 리당일군들은 청년들이 방도를 자체로 찾아 난관을 극복하도록 현장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였다. 당조직의 믿음과 정치사업에 고무된 청년돌격대원들은 지하에 블로크생산기지를 꾸려놓고 건설을 중단없이 내밀었다.

리당위원회는 덩지큰 2동의 태양열남새온실과 버섯생산기지건설에도 청년들을 적극 참가시켜 그들을 실천투쟁속에서 더욱 단련시켰다.

로농통신원 렴창성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창작사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6일 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 교장 김영웅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재일동포자녀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 진행

청진항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가 14일 청진항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청진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집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중국 홍콩선박 《머메이드 스타》호의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을 맞으며 그이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승리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그 어떤 대적도 범접못하는 강위력한 나라를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이 백승을 떨치는 강철의 당으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존엄높은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은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오늘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조선인민은 반드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고야말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집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아시아지역예선 2단계

우리 나라 팀과 우즈베끼스딴팀사이의 경기 진행

【평양 6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국제축구련맹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아시아지역예선 2단계 우리 나라 팀과 우즈베끼스딴팀사이의 경기가 16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2015년 6월 11일부터 시작된 2단계경기는 40개 나라와 지역의 팀들이 8개 조로 나뉘여 련맹전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매 팀이 서로 래왕하면서 대전하게 된다.

우리 나라 팀은 우즈베끼스딴, 바레인, 필리핀, 예멘팀과 함께 8조에 속해있다.

11일 까타르에서 있은 예멘팀과의 경기에서 1:0으로 이기고 우즈베끼스딴팀과의 경기에 나선 우리 선수들은 필승의 신심드높이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였다.

경기가 시작되여 4분경에 우리 팀의 9번선수가 보기 좋게 한꼴을 넣었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백두의 훈련열풍속에 련마한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능력을 발휘하며 힘껏 달리는 선수들을 관람자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하였다.

높은 공다루기기술과 빠른 속도에 의한 2, 3인결합으로 상대팀 문전을 위협하던 우리 팀의 3번선수가 전반전 16분경 머리받기로 득점한데 이어 34분경에 16번선수가, 36분경에 7번선수가 련속 꼴을 성공시켰다.

멋들어진 득점장면들이 펼쳐지고 응원열기가 고조를 이루는 속에 우리 팀 선수들은 공격속도를 부단히 높이면서 상대팀 선수들을 수세에 몰아넣었다.

후반전에 들어와 잃은 점수를 회복하기 위해 공격속도를 높인 상대팀 선수들이 두꼴을 넣었다.

우리 팀은 중간지대를 장악하고 속공과 중장거리차넣기 등으로 득점의 좋은 기회들을 마련하였다.

결국 경기에서는 우리 나라 팀이 4:2로 우즈베끼스딴팀을 이겼다.

이날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과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애호가들, 수많은 수도시민들이 경기를 관람하였다.

인도네시아대사관 성원들 약수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밤방 히엔드라스또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6일 강서구역 조선인도네시아친선 약수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손님들은 농장에 깃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음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았다.

이어 그들은 뜻깊은 올해를 조국력사에 특기할 대경사의 해로 빛내일 일념안고 당면한 영농작업을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의 일손을 도와 강냉이밭김매기를 하였다.

쉴참에 손님들은 농장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특명전권대사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보여주는 이곳 농장에서 앞으로도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대사관성원들은 농장에 지원물자를 넘겨주었다.

【조선중앙통신】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당면한 영농전투를 힘있게 벌리자

가물을 이겨내는 영농전투작전

와우도구역 일군들의 사업에서

올해 와우도구역의 농사가 최악의 조건에서 진행되고있다. 가물로 물이 부족하여 염도가 높은 물로 모를 키워내고 관리하고있는 현실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모든 영농공정들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방도를 찾아쥐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나가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는 주목할만 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지난 6월초 모내기를 앞두고 일군들은 현 실태를 깊이 분석하였다. 일부 농장들의 모들이 염기피해를 받아 올해농사에 영향을 미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특히 간석지논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있는 농장들에서 모를 발상태로 길렀지만 물을 충분히 대주지 못하여 염기피해를 받았던것이였다.

사실 구역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올해에 물절약형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작전을 년초부터 면밀히 하였다. 이때 일군들은 지난해 왕가물로 최저수위에 이른 대다수의 저수지들에 모내기를 할수 있는 물량이 확보되지 못한 조건에 맞게 모내기를 장마철에 접근하여 시작하기로 하였다. 그래야 비물을 리용하여 염도를 최대로 낮추어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었다.

이 작전에 따라 씨뿌리기와 모내기시기를 종전보다 늦추고 그에 맞는 품종을 배치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모판주변에 우물과 굴포를 파고 모를 기르도록 하였다.

그런데 5월에 들어서면서 가물로 우물과 굴포바닥까지 드러나 물을 충분히 대줄수 없게 되였다.

저수지물대신 대동강물을 리용하여 모기르기를 해야 하였는데 측정해보니 염도가 일정하게 높아졌다. 이것은 전례없는 일이였다.

일부 농장원들은 염도가 높은 물로 어떻게 모를 기르고 모내기를 하겠는가, 그러다가 한해 농사를 그르칠수 있다고 하면서 은근히 걱정하였다.

이런 때일수록 구역농사를 책임진 일군들의 결심채택이 중요하다. 일군들이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포로되여 부닥친 난관을 뚫고나갈 생각을 못하면 올해농사의 돌파구인 모내기전투에서 패하게 된다. 무조건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킬 묘술을 찾아내야 한다.

일군들은 이런 각오를 안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그때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 책임일군들이 단물에서 기른 모를 짠물에 적응시킨다면 일정한 기간 생육을 보장할수 있다, 그러면 보리장마를 앞둔 6월 중순전에 얼마든지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고 하면서 한번 시험을 해보는것이 어떻겠는가고 하였다.

구역당책임비서가 이것을 적극 지지해나섰다. 그리하여 단물을 염도가 높은 물에 일정한 량 섞어 모판에 댄 다음 점차적으로 염도를 높이게 하였다. 이런 방법을 보름동안 적용하였는데 짠물에 대한 모의 견딜성이 확실히 강해졌다.

이렇게 키운 벼모를 논에 내니 3일만에 뿌리가 뻗었으며 염도가 높은 논물에서도 10~15일이상 벼의 생육을 보장할수 있었다. 이것을 통하여 일군들은 염도가 높은 강물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일정한 기간 모의 생육을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여기에 맞게 일군들은 평당 포기수보장문제에도 관심을 돌렸다. 적기에 모내기를 진행하지 못한 조건에서 이삭아지를 많이 치지 못할수 있었다. 때문에 일군들은 이삭아지수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에 맞게 평당 포기수를 이미 계획했던것보다 15~20포기정도 더 늘이기 위한 대책들도 세워나갔다.

포전에서 염도를 낮추기 위한 사업을 짜고든것도 긍정할만 하다.

구역의 절반이상의 논은 간석지논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토양속에는 염도가 적지 않게 포함되여있다. 만일 이런 토양의 특성에 맞게 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지 못하면 염도는 더 높아져 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을 타산한 일군들은 염도가 높은 강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이때 물은 10㎝정도의 높이로 2~3일에 한번씩 갈아대도록 하였다. 특히 낮에 물을 뽑으면 소금기피해를 입을수 있기때문에 밤에 물을 뽑고 낮에는 물을 대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니 염도가 훨씬 낮아져 벼의 생육을 보장할수 있었다.

아무리 작전을 빈틈없이 세웠다고 해도 완강한 실천이 결합될 때에 좋은 결실로 이어질수 있다.

포전에 물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나간 사실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올해 구역에서는 대동강물을 수원으로 모내기를 해야 하였는데 일부 포전들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있어 여러단양수기를 통해 물을 받게 되여있었다. 그런데 긴장한 전기사정으로 양수기들이 능력을 다 내지 못하고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결정적으로 양수장들의 위치를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지대가 높은 곳으로 옮겨야 하였다. 모내기를 며칠 앞두고 양수장들을 옮긴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때 일군들은 당의 뜻대로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떨쳐나선다면 얼마든지 빠른 기간에 해낼수 있다고 하면서 앞장에서 걸린 문제를 풀어나갔다. 특히 구역책임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여러곳에 나가 세멘트와 전기선을 비롯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해결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였다.

일군들이 양수장을 타고앉아 양수기설치와 전주대세우기, 전기선늘이기공사에서 이신작칙을 하니 농장원들의 열의가 더욱 높아갔다. 그리하여 모내기를 앞두고 여러 양수장들을 옮기는 전투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련이어 양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양수기들의 날개를 개조하기 위한 사업도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결과 물부족으로 전례없는 난관이 조성되였지만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전망이 마련되였다.

이 구역의 현실은 한개 단위를 책임진 일군들이 당앞에 자기 단위 농사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혁신적인 안목으로 방도를 찾아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갈 때 최악의 조건에서도 알곡증수의 담보를 마련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정 성 일

구제효과가 큰 나비등위치

락랑구역 남사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사를 잘 짓자면 병충해도 막아야 합니다.》

락랑구역 남사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작물비배관리를 잘해나가고있다. 주목되는것은 나비등을 지난 시기와 다른 장소에 설치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한것이다.

앞그루밀보리포전에 나비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함으로써 구제효과를 훨씬 높인 경험을 먼저 보자.

농장일군들은 올해농사를 더 잘 지을 각오밑에 모내기를 다그치는 드바쁜 속에서도 병해충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중시하였다. 그것은 변덕스러운 올해의 기상기후조건과 지속되는 가물로 하여 병해충발생률이 높아질수 있는 조건이 있기때문이였다.

일군들은 우선 나비등위치를 논으로부터 밀보리포전으로 옮겨 병해충구제효과를 높인 제1작업반의 경험을 놓고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지난해 제1작업반에서는 구역식물방역소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앞그루밀보리포전 주변논에 설치한 나비등에 다른 곳보다 몇배나 많은 나비가 떨어져있는데서 문제점을 찾고 나비등위치를 옮겼던것이다. 밀보리포전주변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나비등들은 이전보다 3배이상의 구제효과를 나타냈다.

비결은 벼대벌레의 생물학적특성을 잘 알고 나비등을 효과적으로 리용한데 있었다.

올해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병해충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는데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된 일군들은 모든 작업반들에서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도록 하였다.

먼저 초급일군들에게 나비등위치를 옮겨야 할 필요성에 대해 원리적으로 인식시켜주었다. 일반적으로 벼대벌레는 유충으로 벼짚이나 벼그루터기에서 겨울을 난 다음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경에 땅웃부분으로 올라와 번데기로 될 자리와 나비로 되여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놓고 번데기로 되는 생활습성을 가지고있다. 그런데 이 시기 앞그루밀보리가 한창 자라는 두벌농사포전에는 벼대벌레의 생장에 유리한 온습도와 환경이 조성되군 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앞그루밀보리포전에는 이곳에서 겨울난 유충과 함께 논갈이한 포전에서 넘어온 유충들까지 밀집되군 한다. 앞그루밀보리포전에서 보름가량 번데기로 있던 나비들은 5월말부터 본격적으로 모내기한 포전들에 넘어가 벼잎겉면에 무데기로 알을 쓸군 한다.

결국 밀보리포전은 벼대벌레들이 발생하는 원천지와 같다. 나비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집중적으로 잡자면 나비등위치를 밀보리포전주변으로 옮겨야 한다. …

그들의 설명은 초급일군들과 예찰원들의 귀에 쏙쏙 스며들었다.

모내기가 끝나자마자 농장에서는 밀보리포전들에 나비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해주었다.

일군들은 또한 도로와 제방뚝의 경계선들에도 나비등을 많이 설치하도록 하였다. 농장에는 도로와 강하천을 끼고있는 포전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도로옆과 강하천주변의 크고작은 나무들에서 겨울을 난 벌레들도 모내기한 포전들에 많이 넘어오군 하였다.

이로부터 벌레들이 논으로 넘어가기 전에 모조리 잡기 위해 도로와 제방뚝의 경계선들에도 나비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해주도록 하였다.

그 은이 즉시 나타났다. 나비등을 논에 설치했을 때보다 3배이상의 병해충구제효과가 나타났던것이다.

쌀더미를 높이 쌓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맹세안고 모든 영농공정들을 원리적으로 따져보며 정확한 타산과 빈틈없는 작전밀에 진행해가고있는 이들의 일본새는 얼마나 좋은가.

본사기자 장 은 영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해나가고있다.
—강서구역 잠진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두벌농사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두벌농사는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는 주체적인 집약농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어느날 협동농장들의 포전을 돌아보던 군일군은 미평협동농장의 어느 한 보리포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보리가 전례없이 빨리 여물기때문이였다.

(이 농장이라고 보리품종이 다른것은 아니겠는데…)

이런 의문을 앞세우면서 걸음을 옮기던 그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누구들인지 맞은켠 보리포전에서 수첩을 펴들고 이야기를 나누는것이였다. 다가가보니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이였다.

《보십시오. 포전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보리가 다 이렇게 거의 여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생각되는것이 있었다. 지난 기간에는 해마다 6월 중순부터 보리가을을 시작하여 7~10일동안에 뒤그루작물심기까지 끝내군 하였기때문이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군에서는 올해에도 보리가을과 뒤그루작물심기를 지난 시기처럼 계획하고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달랐다. 지난 시기보다 해비침률이 높아 보리가 빨리 여무는것이였다.

그러면 보리가을을 지난 시기보다 며칠 앞당겨야 하는가.

현실을 구체적으로 료해해보니 포전들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따라 보리의 여문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지난 시기보다 가을을 평균 5~7일 앞당겨 시작해야 하였다. 따라서 뒤그루작물심기도 그만큼 앞당겨야 하였다.

이렇게 되여 군에서는 보리가을과 뒤그루작물심기적기를 다시 정하고 전투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때 군일군들이 잘한것은 보리가을을 앞세우면서 실어들이기를 따라세워 낟알의 허실을 없애도록 한것이다.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받들고 일군들이 적기를 바로 정하고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든것만큼 미평, 읍, 명고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열의가 비상히 높아졌다.

보리가을걷이성과가 오르자 뒤그루작물심기를 따라세워야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수 있다고 본 군일군들은 밭갈이와 거름실어내기를 제때에 하도록 하였다. 결과 강동, 로상협동농장 등 모든 농장들이 보리가을과 실어들이기, 낟알털기, 뒤그루작물심기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본사기자 김 창 길

바로 정한 적기

통천군에서

논두렁김매기를 앞세운 까닭

문덕군 만흥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작물에 대한 비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김매기를 잘하는것입니다.》

지난 어느날 문덕군 만흥협동농장 작업반초급일군들은 뜻밖의 과업을 받았다.

(논이 아니라 논두렁김매기라니?)

영문을 몰라 머리를 기웃거리는 초급일군들에게 관리위원장은 그 리유를 설명해주었다. 옛날부터 논밭머리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실농군이라는 말이 전해져오고있듯이 논농사에서는 두렁관리가 중요하다. 논두렁에서 김이 많이 자라게 되면 논벼에 피해를 주는 여러가지 병해충이 서식할수 있다. 때문에 아무리 포전에 농약을 많이 쳐도 병해충구제효과를 최대로 높일수 없다.

그뿐이 아니다. 다 여문 잡초씨들이 포전에 떨어지면 다음해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김이 자라게 된다. 지난 시기 일부 단위들의 경험은 논두렁의 김을 매지 않고 논판김매기만 한 경우 적지 않은 량의 알곡을 잃어버리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니 이 사업을 어떻게 소홀히 대할수 있겠는가. 당의 농업정책의 요구대로 모든 포전을 꽃밭처럼 알뜰히 가꾸어나가는 여기에 알곡증산의 또 하나의 담보가 있다는것을 명심하자. …

리치가 명백한 관리위원장의 이야기에서 초급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컸고 결심도 새로와졌다. 조직사업이 작업반, 분조별로 활기있게 진행되였다.

모든 농장원들이 담당한 포전들에서 논두렁김매기를 먼저 진행한 다음 논판김매기를 하도록 하니 로력조직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였다. 결과 농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꼭 넘쳐 수행하리라는 기대를 안겨주고있다.

박 영 진

앞그루작물수확을 앞두고

신계군 정봉협동농장 제5작업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앞그루작물수확시기가 다가오는 요즘 신계군 정봉협동농장 제5작업반의 초급일군들이 특별히 중시하는 문제가 있다. 수확하기 열흘전부터 앞그루감자포전에 대한 물주기와 잎덧비료주기를 더 자주 진행하도록 하는것이다. 까닭이 있다.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높이 받들고 작업반에서는 지난 시기에도 앞그루감자농사를 알심있게 지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 앞그루감자농사에서는 수확하기 열흘전부터의 영양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찾게 되였다. 이 시기에는 땅속의 감자알들이 하루가 다르게 여물고 그만큼 영양물질도 많이 요구하기때문이다.

작업반장 최승환동무의 말에 의하면 아무리 많은 품을 들여 가꾸었다고 해도 이 시기의 영양관리를 소홀히 하면 정보당 감자소출이 수백㎏이나 떨어진다고 한다. 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인가.

하기에 작업반초급일군들은 올해에도 이 사업을 특별히 중시하고 필요한 조직사업을 예견성있게 해나갔다. 농업근로자들에게 이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려주고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앞그루감자농사를 알심있게 지어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자고 호소하였다. 또한 남먼저 분무기를 메고 포전에 나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이 물주기와 잎덧비료주기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하도록 요구성도 높이였다.

초급일군들의 힘있는 호소와 헌신적인 작업모습에서 힘을 얻은 농업근로자들도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앞장에서 관철할 불같은 일념을 안고 앞그루감자영양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갔다. 물주기와 잎덧비료주기를 한번 해도 옹근수확을 거둘수 있게 질적으로 진행하였다.

결과 앞그루감자의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가 마련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 성 일

날바다를 길들인 보람

강령대경수산사업소 지배인 원형식동무

강령땅에 가면 해마다 수산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일 잘하는 사업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강령대경수산사업소이다.

자체의 힘으로 수산물생산을 늘여나가는 힘있는 사업소의 앞장에는 언제나 앞채를 메고 대오를 이끌어가는 지배인 원형식동무가 서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삶의 긍지와 보람은 결코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향락을 누리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창조와 투쟁속에 있습니다.》

몇해전 여름 뜻하지 않은 태풍피해로 어로작업을 나갔던 사업소의 배들이 한날한시에 모두 파손되였을 때였다.

너무도 예상치 못한 대자연의 피해앞에서 원형식동무는 억이 막혀 말을 못하였다. 빈터에서 어떻게 한척한척 만들어낸 배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터져나가는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강심을 품고 결심하였다.

이 날바다의 횡포를 반드시 우리 힘으로 이겨내자.

그는 맥을 놓고있는 종업원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하자고 결심한 사람에게는 막혔던 길도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힘을 내서 막힌 길을 열어봅시다.》

이렇게 되여 파손된 배들을 복구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다.

그 나날 원형식동무는 전투장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이른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작업현장에서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리며 일손을 놀리는 사람도 다름아닌 그였고 철판을 비롯한 부족되는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사람도 바로 원형식동무였다.

그가 배수리에 필요한 목재를 해결하기 위해 린접군의 산림경영소를 찾아갔을 때였다. 아름드리나무가 꽉 들어찬 채벌장을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보고난 그는 생각되는것이 있어 급히 양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무 한대를 베면 10대를 심어야 한다는 자각이 들어서였다.

그가 기대한바대로 양묘장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이 많았다.

기쁨에 겨워 그는 어린나무모들을 쓸어보며 생각하였다.

(이 애어린 나무들도 어서 빨리 자라 부강조국의 밑거름이 되여줄수만 있다면…)

사업소종업원들모두가 떨쳐나 나무심기를 진행하였다. 그루마다 거름을 듬뿍 주며 정성다해 나무를 심어나가는 원형식동무와 종업원들의 마음은 더없이 흥그러웠다. 풍어기 날리며 포구에 들어서는 래일의 모습을 보는것만 같아서였다.

그렇게 10대를 심고 한대씩 벤 통나무들은 사업소의 배들을 살려내는데 큰 밑천이 되였다.

여러해전 원형식동무는 다시 마떼고정매몰닻때문에 적지 않게 속을 썩이였다.

다시마양식을 하려면 떼를 고정시켜야 하는데 무게가 몇tt이나 되는 고정물이 양식장 1정보에만 하여도 근 100개나 들었다. 그러니 사업소의 적지 않은 양식장에서 다시마를 생산하자면 막대한 량의 고정물이 있어야 하였다.

처음에는 어느 한 섬에서 막돌을 캐여 날라다가 고정물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돌원천이 딸리자 생각해낸것이 세멘트로 만든 고정물이였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의 마음을 만족시켜주지 못하였다. 수시로 일어나는 태풍에 고정물이 밀려나가면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그 많은 세멘트를 당해낼수가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는 고심을 많이 하였다. 해주, 남포시의 여러 대학들을 찾아다니기도 하였고 바다가양식을 잘한다고 소문난 수산사업소들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가 바라는 그런 고정물은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다.

먼길을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설 때마다 그는 다시마양식에 필요한 고정물을 기어이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그때부터 그는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실리가 보장되는 고정물을 만들것인가를 생각하였다.

집에 들어와 밥 한술을 뜨다 말고는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 그를 보며 그의 안해는 나무라듯 말하였다.

《그 고정물인지 뭔지 그때문에 아예 때식을 건늘 작정이나요.》

그 말에 원형식동무는 웃으며 대답하였다.

《다시마풍년을 마련할수만 있다면야 그까짓 때식을 한두끼 건네는것이 뭐가 대수겠소.》

그 말에 안해는 더 말을 못하였다. 일밖에 모르는 남편의 성미를 너무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포구에 들어온 배들이 닻을 내리는 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던 원형식동무의 머리에 문득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바다밑바닥을 꽉 그러잡고 놓지 않는 배의 닻처럼 고정물을 바다밑바닥에 깊숙이 박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는 잠수공들과 함께 자기가 착상하여 만들어낸 몇㎏밖에 안되는 세멘트로 만든 고정물을 압축공기를 리용하여 바다밑감탕속깊이에 넣어보았다.

성공이였다. 압축공기에 의해 바다밑감탕속을 헤치며 수m깊이로 잠긴 고정물은 그 어떤 태풍에도 견디여낼수 있게 양식떼들을 든든히 고정시켰던것이다.

원형식동무의 이런 노력속에 세멘트를 종전보다 10분의 1이하로 절약하면서도 그 어떤 태풍에도 견디여낼수 있는 다시마떼 고정매몰닻이 생겨나게 되였고 다시마생산을 안전하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고심어린 탐구의 나날은 원형식동무에게 바다를 길들이는 힘과 열정을 키워주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지난 시기 손으로 하던 김수확을 기계화하여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김생산을 1.5배로 늘일수 있게 한것도 원형식동무의 고심참담한 사색과 노력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사업소의 건물들을 번듯하게 새로 일떠세울 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날 이른아침 건설장에 나온 종업원들은 한동안 움직일줄 몰랐다. 미장칼을 든채 잠에 든 원형식동무가 눈에 띄여서였다.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그의 모습이 종업원들에게 눈물겹게 안겨왔다.

(이런 일군과 함께라면…)

종업원들은 누구나가 다 원형식동무를 친부모처럼 따르며 존경한다.

새땅을 찾아내여 종업원들의 살림에 보탬을 주고 해마다 살림집을 지어 제대군인종업원들이 집걱정을 모르게 해주고있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지난 기간 원형식동무가 해놓은 일들을 말하자면 끝이 없다.

제힘으로 날바다를 길들여가는 이런 일군이 있어 강령땅에는 오늘도 래일도 사회주의바다 향기가 계속 차넘칠것이다.

본사기자 한 원

그 정성이 저를 일떠세웠습니다

사리원시에 사는 영예군인 곽명금동무가 들려준 이야기

뜻깊은 올해 건군절 아침이였다. 사리원시 구천2동 30인민반의 한 가정에서 환성이 터져나왔다.

군사임무수행중 뜻하지 않은 일로 두다리를 다쳐 여러해동안 일어설수 없었던 특류영예군인인 곽명금동무가 제힘으로 일어선것이였다.

영예군인의 부모형제와 이웃들은 물론 곽명금동무를 성심성의를 다해 도와준 홍성국, 김성수동무를 비롯한 황해북도무역관리국 산하단위 일군들도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나 애로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난해 어느날 홍성국동무는 한 일군으로부터 같은 아빠트에 사는 특류영예군인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비록 일어설수 없는 몸이지만 락천적으로 생활하고있는 그 영예군인처녀에 대한 이야기는 홍성국동무를 감동시켰다.

홍성국동무는 곧 당조직을 찾아가 그 영예군인을 자기 단위에서 맡아 도와줄것을 제기하였다. 초급당비서 김성수동무도 적극 지지하였다.

이렇게 되여 영예군인처녀의 병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이 시작되였다.

여름철에는 승용차를 내여 료양소로 보내주고 의사들을 찾아가 그의 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도 보며 어느 한 중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때에는 친부모된 심정으로 영예군인처녀를 따뜻이 돌봐주었다.

그 진정에 료양소의 일군들도,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도 감동을 금치 못해하며 곽명금동무의 병치료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의료일군들의 불같은 정성과 이들의 진심어린 노력으로 특류영예군인 곽명금동무는 제힘으로 일어설수 있게 되였다.

그러한 영예군인처녀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자기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결의해나설 때 이들은 더없이 기뻐하며 자기들의 지성도 합쳤다.

영예군인을 일으켜세우기 위해 지성을 다해온 이곳 단위의 일군들은 영예군인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락천적으로 생활하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오늘도 곽명금동무의 생활을 성심성의를 다해 보살펴주고있다.

특파기자 김 천 일

기술혁명의 앞장에 내세워

상농광산의 일군들이 광산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어 그들이 높은 기술혁신성과로 광물증산투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고있다.

광산당조직에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이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소조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있다.

광산의 행정일군들은 소조원들의 기술혁신과제수행정형을 수시로 료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고있다. 얼마전 일군들은 한 소조원이 기술혁신과제수행에서 자재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애를 먹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풀어주어 그가 기술혁신사업을 중단없이 내밀도록 도와주었다. 광산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과 사심없는 방조속에 3대혁명소조원들은 광물증산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성과들을 내놓고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거둔 기술혁신성과들은 광산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과 다심한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오늘도 광산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로농통신원 리 상 두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영생하는 불굴의 인간

오늘도 우리 당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상징으로 빛나고있는 애국렬사릉을 찾는 사람들은 공화국2중영웅이며 조국통일상수상자인 리인모동지의 묘비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정히 다듬어세운 화강석비돌에 빛나는 영웅의 돌사진, 그밑에 새겨진 글발들…

주체96(2007)년 6월16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리인모동지가 우리곁을 떠났다는 비보에 접하게 되시였다.

온 세상이 다 아는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그토록 내세워주시던 전사에 대한 생각으로 못내 가슴아파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명의로 화환을 보내주시였으며 장의식을 아직 우리 당과 조국의 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새로운 형식인 인민장으로 하도록 하시고 그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장하도록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절세의 위인들의 슬하에서 혁명을 알고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가장 값높은 영생의 단상에 오른 렬사, 금시 살아 반길것만 같은 영웅의 돌사진을 보느라면 우리 장군님께서 절절하게 하신 교시가 깊은 감회속에 되새겨진다.

《세상에 리인모처럼 신념이 확고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그는 전향문 한장만 쓰면 오래동안 감옥생활을 하면서 고생하지 않을수도 있었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힘으로 수십년동안 적들에게서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혁명가의 지조를 꿋꿋이 지켰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당과 수령이 있는 한 우리 혁명은 승리하고 조국은 반드시 통일된다는것을 믿고있었기때문입니다.》

당과 수령의 추억속에,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불사신의 영웅,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별처럼 빛나고있는 리인모동지!

그의 고결한 생은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혁명승리에 대한 드팀없는 확신을 간직할 때 그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신념과 지조를 지킬수 있고 원쑤들과의 싸움에서 최후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지리산인민유격대에서 적후투쟁을 벌리던 리인모동지는 총상을 입고 적들에게 체포되였다. 원쑤들은 34년간이라는 기나긴 세월 그를 감옥에 가두고 전향을 강요하며 뼈를 부스러뜨리고 살을 저며내는 악착한 고문을 가하였다. 너비가 다섯뽐반, 길이가 열세뽐밖에 안되는 작고 캄캄한 독감방에서 겪은 소름끼치는 고통, 국그릇에 담긴 쥐까지 건져먹지 않으면 안되였던 기막힌 이야기, 추운 겨울날 찬물을 뿌려 꽁꽁 얼군 알몸을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야수적인 전향강요고문…

그러나 리인모동지는 불사조마냥 굴하지 않고 싸웠으며 가슴속깊이 간직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의 신념과 의지를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그가 감옥살이에서 풀려났을 때는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였다. 70살이 넘은 고령인데다가 오랜 감옥살이로 페인이 된 몸이였다.

그때 그가 생각한것은 과연 무엇이였는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사회주의조국의 품, 어머니품에 기어이 안겨야 한다는것이였다.

리인모동지의 옥중수기에는 이런 시구절이 적혀있다.

…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않은
기쁨이여 영광이여
네 뼈마디에 마지막기름이 마르고
네 가죽이 백골보다 앙상한 뼈를
감쌀 때까지
네 심장이
마지막맥박을 칠 때까지
조국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라
…

멀건 소금국물에 비친 앙상한 얼굴을 바라보며 지었다는 이 시에 그의 송죽같은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진하게 비껴있는가.

조선의 혁명가들에게는 하나의 강의한 신념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이다.

이 불굴의 신념을 리인모동지는 어린시절 고향 풍산땅 파발리에 진출했던 조선혁명군의 총성을 듣고 싹틔웠으며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인생의 참된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뼈와 살에 새기였다. 실체험을 통하여 가슴속에 깊이 간직한 혁명신념이였기에 그는 수십년동안이나 철창속에 갇혀 중세기적인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꿋꿋이 지켜냈다.

리인모동지의 출옥후 한 작가가 그를 찾아와 《남과 북중 조국을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남쪽은 조국이 아닌가?》라고 물은적이 있었다. 그때 리인모동지는 《남쪽은 내 조국이 아니다.》라고 당당히 웨쳤다.

리인모동지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런 일도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정체불명의 한 요원이 그에게 북으로 가는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것이 어떻겠는가고 하면서 지금 모스크바도 넘어지고 사회주의도 다 없어지는데 북으로 꼭 가야 하겠는가고 빈정거렸다. 그때 리인모동지는 그자에게 격한 심정으로 《내 조국은 북이지 남이 아니다. 시국이 어떻든 내가 내 조국으로 가자고 하는데 무슨 상관인가. 내 북행길을 막지 말라.》고 면박을 주었다.

자기 수령, 자기 조국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변함없는 충정의 마음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은 원쑤들의 소굴에서 결코 이렇듯 의롭게 행동할수 없다. 혁명가의 고결한 신념과 의지가 심장속에 꽉 들어찼기에 리인모동지는 뇌출혈까지 겹쳐 극히 병약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당과 수령의 품, 조국의 품에 기어이 안기고야말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혁명가는 절해고도에서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앞에 다진 맹세를 변치 말아야 한다. 변함없는 신념, 굴함없는 투쟁속에 혁명가의 참된 삶과 인생의 보람이 있다.

리인모동지의 투쟁은 그것을 뚜렷이 보여준 빛나는 모범으로서 오늘도 우리 인민을 끝없이 감동시키고있다.

그의 옥중투쟁 수십년간은 순간순간이 그야말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이어진 참기 어려운 나날이였다. 하다면 그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고초를 무슨 힘으로 이겨냈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수령에게 다진 맹세, 입당할 때의 맹세였다.

리인모동지는 내가 갈 길은 죽으나사나 한번 택한 혁명의 길, 다진 맹세를 지키는 길이다, 감옥살이가 두렵고 교수대가 무서워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배반한다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배신자, 인간추물이 될수 없다, 한생을 감옥에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누가 모르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떳떳이 살고 깨끗하게 죽자라고 심장으로 웨치며 옥중고초를 서슴없이 맞받아나갔으며 긴긴세월의 수난과 고통을 강의한 의지로 이겨냈다.

지금도 들려온다. 통일애국투사 리인모동지가 옥중에서 늘 외우던 말이.

—조국을 배신한 변절자는 지은 죄때문에 악몽속을 헤매며 하루도 발편잠을 못 잡니다. 푸른 하늘아래 얼굴을 들고다닐수도 없고 죽어 묻힐 한치의 땅도 없습니다.

그의 이러한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높이 평가해주신분은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인가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리인모동무를 높이 평가하고 내세우는것은 그가 전향서 한장만 쓰면 고생을 면할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당적량심을 더럽힐수 없고 혁명적신념을 저버릴수 없어 34년동안이나 무서운 옥고를 치르면서도 혁명가의 절개와 지조를 꿋꿋이 지켰기때문이다. 리인모동무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앞에 부끄럽지 않게 잘 싸웠기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당의 품에 떳떳이 안길수 있었다. …

어머니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불사신의 영웅 리인모동지는 그 후에도 불편한 몸이지만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불같은 삶의 자욱자욱을 수놓아왔다. 그는 변함없는 종군기자의 자세와 열정으로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문필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한생을 티끌만 한 량심의 그늘도, 순간의 변심도 없이 오직 자기 수령, 자기 당을 끝까지 믿고 따른 리인모동지의 인생행로는 얼마나 값있고 빛나는것인가.

리인모동지는 비록 우리곁을 떠났어도 그가 지녔던 수령에 대한 열화같은 충실성과 흠모심,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절개는 누구나 따라배워야 할 귀감으로 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리인모동지를 본받아 당과 수령을 따르는 길에서 죽어도 혁명신념을 버리지 않을것이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기어이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라설하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네트에 글 게재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인터네트홈페지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2000년 6월 조선통일의 리정표로 불리우는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10여년세월이 흘렀지만 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변함없는 조선통일의 기치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투철한 자주정신으로 일관되여있다.

조선의 분렬은 민족내부의 그 어떤 모순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해 강요된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세계제패야망으로부터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겉으로는 조선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척 하였지만 실제로는 조선통일운동을 각방으로 방해해나섰다.

때문에 조선민족은 아직도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는것이다.

70년에 이르는 조선민족분렬사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그 어느때가서도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통일을 실현할수 없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조선의 통일은 오직 그 주인인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조선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되여야 할 문제이다. 다시말하여 민족자결권에 관한 문제이다.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여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외세에 의해 분렬된 조선반도의 현실로 보나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는 조선통일문제의 본질로 보나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것이 아닐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평화수호의 의지가 비껴있다.

남조선당국이 동족을 해치려는 외세에 추종하지 않았다면,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거부하고 저들의 하늘과 땅, 바다가 미군의 전쟁연습장으로 되는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한마디로 남조선당국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존중했더라면 조선반도정세가 지금처럼 위기상태에 처하지 않았을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곧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다.

만약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인류가 여직껏 체험해보지 못한 열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것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또한 민족대단결의 정신이 반영되여있다.

6.15공동선언발표후 조선반도에 펼쳐졌던 경이적이고 감동적인 현실은 온 민족이 단합될 때 조선통일이 얼마든지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세계는 조선의 북과 남이 언어도 피줄도 문화도 하나이며 반드시 통일되여야 할 민족임을 실감하게 되였다.

반세기이상 서로 적대시하며 대결하여온 북과 남이 민족대단합을 파시할수 있은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안아온 결실인것이다.

국제사회는 조선의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끝까지 충실하기를 바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극악한 반통일역적패당을 단호히 쓸어버리고 북남공동선언을 견결히 고수, 리행하자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중국지역위원회(6.15중국지역위원회)가 9일 《6.15민족공동행사 파탄시킨 괴뢰패당을 단죄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추진되여오던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기념 민족공동행사가 남조선당국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끝끝내 실현되지 못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가 6.15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킨 남조선당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항의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고 밝혔다.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조선반도에 평화적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온 겨레의 일치한 의사를 무참히 짓밟고 6.15민족공동행사를 고의적으로 파탄시킨 남조선당국의 책동은 용납 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라고 단죄하였다.

6.15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키고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에로 몰아넣고있는 남조선보수패당은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지향을 가로막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자들은 비참한 말로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미국상전의 옷자락에 계속 매달리는 매국배족행위와 반통일적대결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우리는 극악한 반통일역적패당을 단호히 쓸어버리고 북남공동선언을 견결히 고수하며 그 리행을 위한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남조선당국의 방해책동으로 비록 6.15민족공동행사를 진행할수 없게 되였지만 해내외의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발표 15돐과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 *

남조선의 서울에서 6.15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킨 남조선당국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롱성투쟁이 계속 전개되고있다.

11일 롱성의 일환으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량심수후원회의 참가하에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정부》가 《순수 문화체육행사》라는 억지론리 등을 들고나와 6.15공동선언발표 15돐기념 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켰다고 비난하였다.

남북로동자들이 통일축구를 통해 교류의 길을 열려고 한것도 현 《정부》가 훼방을 놓았다고 하면서 이것은 현 당국자가 말하는 《통일대박》이란 결국 권력유지를 위해 사용한 수사에 불과하다는것을 말해준다고 단죄하였다.

《정부》야말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통일을 반대하는 반민족적《정부》라고 규탄하였다.

민족공동행사는 그 어떤 정치적리해관계를 초월하여 민족적대의인 통일을 위해 진행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면서 단체들은 《정부》가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 *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뉴시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광복 70돐, 6.15공동선언발표 15돐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12일 대변인성명을 통해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6.15공동선언발표 15돐에 즈음한 민족공동행사가 끝내 성사되지 못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6.15민족공동행사가 파탄되게 된것은 《정부》가 군사적압박과 대결을 앞세우면서 나날이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온데 있다고 까밝혔다.

《정부》의 적대시정책이 이번 공동행사파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정부》가 말로만 대화를 운운하지 말고 진실로 평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북정책》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8.15해방 70돐 남북공동행사 역시 난관에 부딪칠수밖에 없을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염병사태에 밀려 표류하는 난파선

지난해 4월 남조선의 진도앞바다에서 있은 려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는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참사가 아니다. 그 비극적참사는 전적으로 현 집권세력의 무능과 반인민적처사가 빚어낸 필연적결과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남조선에서는 그와 다를바없는 재난이 되풀이되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지금 남조선에서는 《메르스》로 불리우는 호흡기성전염병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어 인민들의 커다란 불안을 자아내고있다. 이것 역시 집권세력의 반역통치가 몰아온 인재이다.

지난 5월 20일 첫 호흡기성전염병환자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남조선언론들은 그 위험성에 대해 련일 크게 보도하면서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전염병관리를 보건복지부와 일부 병원들에 떠넘기고 저들은 《국회법》개정을 둘러싼 싸움질만 벌려놓았다.

그들이 이번 전염병사태를 얼마나 안일하게 대했는가 하는것은 집권자가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라는데서 환자수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내는 왕청같은 수작을 늘어놓고는 그 무슨 개막식참가를 구실로 전라남도로 나들이를 떠난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집권자부터가 이러하니 그 아래것들도 호흡기성전염병은 《별것이 아니》기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는 외마디말만 앵무새처럼 외워대면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주민들의 불안을 부추길수 있다는 나발을 불어대며 전염병이 발생한 병원과 지역, 전파경로 등에 관한 자료들이 일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입을 꽁꽁 닫아맸다.

설마가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다. 요행수만 바라는 괴뢰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와 엉터리대응으로 하여 호흡기성전염병은 불과 며칠사이에 도처에로 걷잡을수 없이 확대되였다. 전염병으로 하여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바빠맞은 괴뢰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가 나서서 《비상대책》이요 뭐요 하면서 분주탕을 피웠지만 이미 행차뒤나발이였다.

지난 14일현재 15명의 환자가 사망하였으며 격리대상자는 근 5 000명계선으로 육박하고있다. 사태가 긴박해지면서 2 000여개의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대학들이 문을 닫았으며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 이 병에 전염될지 몰라 극도의 불안과 공포속에 떨고있다. 그야말로 온 남조선땅이 아비규환의 대수라장으로 변하였다.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이 이번 전염병사태의 근원이라는것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다.

더우기 격분을 금할수 없는것은 집권자가 호흡기성전염병으로 사회전체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있는데도 그를 피해 미국으로 몸을 사리려 하고있는것이다. 원래 괴뢰집권자는 14일부터 5일간 미국으로 날아가 오바마와 함께 상전과의 《동맹》강화와 그 무슨 《북의 핵위협과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모의할 계획이였다. 그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항의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집권자는 미국행각일정을 잠시 연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술책일뿐이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현 집권세력의 특대형부정부패사건인 성완종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집권자는 황급히 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행각의 길에 올라 해외도피행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남조선당국자에게 있어서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같은것은 안중에 없다. 그의 골수에는 어떻게 하면 집권위기를 모면하고 권력을 유지하며 동족을 해치겠는가 하는 흉악한 야망만이 꽉 들어차있다. 그것은 최근 집권자가 전염병사태로 분노한 민심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려고 매일과 같이 반공화국대결발언을 계속하고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집권자로서는 30년만에 처음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이라는데 코를 들이민 그는 새로 개발했다는 미싸일의 시험발사를 지켜보면서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들었다.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현충일》추념사라는것을 하면서 《위협》이니, 《핵무장포기》니 하고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시비질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이로써 인민들이야 죽든말든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정치적야욕과 북침야망의 실현에만 피눈이 되여 돌아치는 그들의 추악한 정체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명색이 집권자라면 응당 자기의 무능력과 무책임, 반인민적악정이 몰아온 이번 전염병사태에 대해 인민들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웠어야 옳다. 그러나 그는 저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꼬물만 한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책임회피와 집권위기수습,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외세와의 공조에만 급급하고있다. 이것을 남조선인민들은 절대로 용서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 집권자의 지지률이 또다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하고있는것은 그의 반역정책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닿았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사태가 점점 저들에게 불리하게 번져지고있는데 당황망조한 남조선당국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느니, 《책임을 따지기보다 전파방지에 력점》을 두어야 한다느니 하고 민심을 얼려넘기려고 획책하고있다.

하지만 그런 눅거리기만술책에 넘어갈 사람은 없다.

호흡기성전염병사태를 통해 현 괴뢰집권세력의 반역적정체를 다시금 똑똑히 꿰뚫어본 남조선인민들은 분노하여 들고일어나고있다.

본사기자 심철영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로씨야 미국의 그릇된 처사 비난

로씨야외무성이 최근 공보를 발표하여 미국의 그릇된 처사를 비난하였다.

미국이 우주에 무기를 배비하는것을 금지할데 관한 국제적합의작성에 참가하기를 완강히 거부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공보는 우주에서 힘의 행사에 매여달리려는 미행정부의 시도자체가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라고 단죄하였다. 공보는 우주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려는 미행정부의 변함없는 야망은 세계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적노력에 완전히 배치된다고 강조하였다.

비행전술훈련 진행

로씨야의 크림에서 최근 공격직승기들의 비행전술훈련이 진행되였다.

3일동안 벌어진 이번 훈련에는 10여대의 공격직승기들과 대공미싸일련대가 참가하였다.

훈련에서 직승기들은 비유도미싸일과 기관포사격으로 각이한 목표들을 소멸하였다.

남부군관구 공보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마약 압수

이란에서 최근 마약반대투쟁에 힘을 넣고있다.

8일 이 나라 경찰당국이 밝힌데 의하면 3월 21일에 시작된 현 이란년도의 첫 2개월동안에 전국적으로 100여t의 각종 마약이 압수되였다.

특히 코라싼 라자비주와 시스탄 발루치스탄주에서 많은 마약이 적발되였다고 한다.

또한 알바니아경찰이 최근 티라나와 꼬르챠에서 마약수색작전을 벌렸다.

작전과정에 7명의 마약관련범죄자들이 체포되고 23.4kg의 카나비스가 압수되였다.

영양실조자 감소

캄보쟈에서 주민들의 식량문제해결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정부의 노력에 의해 지난해 전국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의 비률이 1990년의 32%로부터 14%로 줄어들었다. 얼마전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가 밝혔다.

차잎 생산

케니아에서 4월에 7만 8 590t의 차잎을 생산하였다.

이로써 지난해 7월부터 생산된 차잎량은 총 84만 9 440t에 달하였다. 10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경제장성목표

방글라데슈에서 7월에 시작되는 새 회계년도에 경제장성률을 7%로 올릴것을 계획하고있다. 4일 이 나라 재정상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꾸바에서 자연피해방지노력

사대매국이 초래하는 수치와 굴종

사대매국의 길은 수치와 굴종의 길이다.

주변대국들이 이리 끌면 이리로 끌려가고 저리 끌면 저리로 끌려가면서 코꿰인 송아지처럼 굴종의 수레를 끌던 조선봉건왕조말기의 그 비극이 식민지남조선에서는 지난 70년간 끊임없이 지속되여왔다. 그것은 사대와 굴종이 남조선괴뢰들의 유일한 연명책이기때문이다. 더우기 외세추종의식이 뼈속까지 슴배여있는 가련한 식민지노복의 무리인 현 집권세력하에서 빚어지는 꼴은 정말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이다.

요즘 남조선당국이 또다시 독틈에 끼운 탕관신세가 되여 쩔쩔 매고있다. 최근 몇달동안 말썽많은 《싸드》의 남조선배비문제와 관련하여 이쪽저쪽에서 압력을 받아 편포짝신세가 되였었는데 이번에는 생뚱같이 중국남해에서의 분쟁문제가 골을 쑤시게 하고있는것이다.

최근 중국남해에서는 령유권문제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사이의 신경전과 갈등이 날로 첨예화되고있다. 미국과 일본이 이를 주변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삼고 붙는 불에 키질하듯 끼여들어 복잡성을 야기시키고있어 이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있다.

가관은 남조선당국이 미국상전으로부터 주변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몰이군노릇을 강요당하고있는것이다.

얼마전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라는자는 워싱톤에서 있은 어느 한 토론회에서 남조선당국이 중국남해에서의 분쟁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오금을 박았다.

지금껏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개입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중국남해문제와 관련하여 이쪽저쪽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여왔는데 이것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있는것이다.

미국의 요구는 남조선이 미국주도의 국제질서밑에서 생존해왔고 중국남해문제에 직접적인 리해관계가 없으므로 응당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것이다. 첫번째 리유는 괴뢰들이 지금껏 저들덕에 연명해왔기때문에 그 신세를 갚으라는 소리로 들을셈치더라도 두번째 리유는 그야말로 생억지이다. 미국은 괴뢰들이 짬새에서 눈치보기만 하면서 꿀먹은 벙어리흉내를 내지 말고 명백히 저들의 편을 들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것을 로골적으로 강요하고있다. 초보적인 외교관례마저 무시하고 무작정 저들의 강도적인 요구를 내리먹이는 미국의 오만한 처사는 오직 불평등한 미국남조선관계에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미국의 식민지주구, 꼭두각시들인 현 남조선집권세력이 미국의 요구에 대해 삐꺽소리 한마디 못한것은 물론이다. 미국이 배아파하면 설사를 해야 할 정도로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에 있는 그들이 상전의 이번 요구도 거역할수 없을것이라는것이 여론의 일반적인 평이다. 그통에 가뜩이나 굴종외교로 조롱받던 남조선당국의 외교라는것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고 괴뢰들은 국제사회의 면전에서 깨깨 망신당하고있다.

현 남조선당국은 지금껏 미국과 주변나라와의 관계를 《균형적으로 조절》하면서 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구걸하고 동족을 압박하려고 안깐힘을 써왔다. 그런데 미국은 남조선당국의 이런 어정쩡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저들편에 서라고 계속 강박해왔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지역의 잠재적인 적수들을 군사적으로 포위억제하는데서 일본과 남조선을 적극 써먹으려 하고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서로 얼굴을 붉히며 제가다리로 노는 일본과 남조선을 3각공조체제에 든든히 얽어매고 반공화국고립압살소동에로 부추기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파렴치한 력사외곡책동과 해외침략기도에 지지를 보내면서 그것을 더욱 조장하는 한편 남조선당국이 주변나라와 어울려돌아가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고있다. 바로 그래서 《공동의 가치와 리해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 주력해야 한다고 남조선당국에 짬짬이 오금을 박아온것이며 이번에는 중국남해문제와 관련하여 주변나라를 반대하는 전선에 설것을 강요하고있는것이다.

그로 하여 현 남조선집권세력이 들고나온 《균형외교》라는것은 완전히 편포짝이 되고말았다. 내외여론이 한결같이 평하다싶이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평등한 동반자관계는 고사하고 일방적인 의무 즉 상전의 침략적인 동북아시아전략에 군말없이 협력하여야 하는 숙명을 지니고있다.

바로 이것이 날로 치렬해지는 대국들의 패권다툼속에 갈수록 쭈그렁박이 되여가는 남조선의 창피스러운 모습이다. 그것은 똑똑한 정치철학도, 자주권도 없이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명줄을 부지해온 남조선집권세력의 필연적인 운명이다.

남조선집권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무슨 《국격》따위를 운운하며 세상사람들을 웃기군 한다. 하지만 대내외정책을 독자적으로 세우고 집행할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이 없는 그들이 《국격》이니 뭐니 하는것은 또저히 당치않다. 남조선집권세력이 미국과의 그 무슨 《최상의 동맹》에 대해 요란히 떠들지만 그것은 식민지주구로서의 저들의 가련한 처지를 가리우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중국남해문제와 관련하여 호미난방신세가 된 그들의 가긍한 몰골을 조소어린 눈길로 지켜보며 세상사람들은 그것을 다시금 확신하고있다.

중국남해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파렴치한 망동과 그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려 하는 남조선당국의 어리석은 처사는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긴장시키는 장본인, 도발자가 다름아닌 미국과 남조선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그런데도 남조선괴뢰들이 그 주제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자주정치로 빛나는 우리 공화국을 틈만 있으면 악랄하게 걸고드는것은 뻔뻔스러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에게 한쪼박의 리성이나 자존심이 있다면 늦게나마 사대와 굴종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과거와 결별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때문에 빈번히 골탕을 먹으면서도 굴종의 늪에서 애당초 헤여나올념을 못하고있다. 이 얼마나 가련한 숙맥들인가.

외세의존의 종착점은 파멸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과 대결하는 매국반역정책을 버리지 않는다면 언제 가도 식민지주구의 수치와 오명을 벗을수 없다.

허영민

ㄱ-51094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